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빌러비드』의 재기억을 통한
자아회복의 과정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李 香 玉

2018年 2月

『빌러비드』의 재기억을 통한 자아회복의 과정

指導教授 卞 鐘 民

李 香 玉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7年 12月

이향옥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17年 12月

목 차

국문초록	i
I. 서 론	1
II. 고립과 단절	7
III. 재기억을 통한 과거와의 대면	23
IV. 자아의 회복	38
V. 결 론	47
Bibliography	50
Abstract	54

『빌러비드』의 재기억을 통한 자아회복의 과정

李 香 玉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指導教授 卞 鐘 民

본 연구의 목적은 토니 모리슨(Toni Morrison)의 『빌러비드』(*Beloved*)의 중심인물들이 재기억을 통해 과거와 대면하고 자아를 회복해 가는 과정을 연구하는 데 있다. 이 소설의 시작 시점은 노예해방이 이루어지고 난 후인 1873년이다. 그러나 중심인물들은 여전히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 가지 못하고 정신적인 고립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중심인물들의 이러한 고립된 삶을 되짚어보고, 그들의 내면을 관통하는 노예제의 참상을 되살려 이것으로부터 그들이 자유롭게 벗어나 참된 자아를 갖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겪는 과정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소설의 중심인물인 시이드(Sethe)와 폴 디(Paul D)는 노예제로 인한 상흔으로 정신적인 자유와 주체성을 박탈당한 채 살아간다. 그리고 덴버(Denver)는 노예제도를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시이드의 과거에 함께 묶인 채 사회와 단절된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정신적인 혼란을 겪는다. 흑인노예로 살았던 시이드와 폴 디의 참담한 모습은 노예제도를 겪은 흑인 전체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꿈의 나라’라고 자처하는 미국이 잃어버린 아니 애써 잃어버린 척 하는 노예제의 치부를 드러낸다. 모리슨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너무나 고통스러워 잊혀 지지도 말하여지지도 않은 채 현실을 살아가는 그들을 지배하는 과거이다. 그러나 모리슨은 과거에 대한 기억이 현재의 삶을 방해한다고 해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은 채 미래를 꿈꾸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자아의 회복은 과거의 상처를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리슨은 재기억(Rememory)을 통하여 중심인물들이 과거를 대면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게 한다. 육화된 모습으로 나타난 빌러비드(Beloved)의 존재는 바로 재기억을 촉진시키기 위한 서사적 장치인 것이다.

시이드(Sethe)와 폴 디(Paul D)는 말하기를 통하여 알지 못했던 과거의 사실들을 알게 되고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던 기억들이 하나로 통합되고 재구성된다. 또한 빌러비드의 등장으로 촉발되는 재기억으로 그들은 아픈 과거를 대면하고 그 과거를 새롭게 인식한다. 즉, 그들은 재기억을 통해 과거를 제대로 잊혀 질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스스로 조금씩 자아를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시이드는 점점 빌러비드와의 관계에만 집중하며 다시 과거로 빠져들게 되는데, 희망의 딸로서 덴버는 밖으로 나가 공동

※ 본 논문은 2018년 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체의 도움을 요청한다. 이웃들의 도움으로 시이드는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소중함을 느끼고 진정한 주체로서 자아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이 소설은 노예제도의 폐해로 인해 아직까지 흑인들의 내면에 남아있는 억압된 상처들을 재기억의 과정을 통해 끄집어내어 당당히 말하고 공유함으로써 심리적 자유를 얻고자하는 흑인여성작가의 통찰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곧 이 텍스트의 주제이며 억압된 자아를 회복하고 미국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그들의 의지인 동시에 인간답게 살기 위한 기본 권리인 것이다. 즉, 『빌러비드』는 노예제도를 겪은 흑인들의 특수한 경험을 다루었지만 결국 인간의 정체성 추구라는 보편적인 문제로 확대 연결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음을 전달하고자 한다.

I. 서론

토니 모리슨(Toni Morrison, 1931-)은 『솔로몬의 노래』(*Song of Solomon*, 1977)을 발표한 이래 흑인 작가로서는 드물게 대대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흑인 문학의 위상을 정립하고 발전시킨다. 이후 1988년 풀리처상을 수상하고 1993년에는 흑인으로서 처음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그녀는 미국의 대표적인 흑인 여성작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진다. 모리슨은 1970년에 출간한 첫 소설 『가장 푸른 눈』(*The Bluest Eye*)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의 작품인 『그 아이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God Help the Child*, 2015)에 이르기까지 노예제도로 인해 왜곡된 흑인들의 정체성 추구를 주제로 일관되게 글을 써왔다.

과거 흑인 노예들은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박탈당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백인들은 흑인들을 더 쉽게 지배하기 위하여 흑인들에게 열등의식을 심어주었고, 이로 인해 흑인 노예들은 자신들보다 우월한 백인들에게 차별대우를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흑인들은 자아를 상실한 채 미래가 없는 삶을 살아야만 했다. 또한 인간이기에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특권, 특히 가족이라는 개념이 인정되지 않았고 사회 구성원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저 생명이 유지되는 한 매우 좁은 의미의 기능, 노동과 생산만을 하다가 이름도 없이 죽는 것이 흑인 노예의 삶이었다.¹⁾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흑인 노예들은 1700년경부터 ‘노예자서전’(Slave Narratives)이라는 그들만의 문학을 창조한다. 이것은 흑인 노예들이 자신들의 노예로서의 고단했던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경험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노예제도하에서의 흑인들의 참상을 고발함으로써 미국 정부가 허가한 노예제도가 인간이 만들어 낸 가장 악의적인 제도임을 인식시켜 노예제도의 폐지에 이바지 한다.

이후 미국 흑인 문학은 민권운동의 아버지라고 하는 더글러스(Frederick Douglass)의 『내러티브: 미국 노예 프레더릭 더글러스의 생애』(*Narrative of*

1) 이영욱, 『미국소설과 공동체 의식 - 로버트 펜 워런 · 토니 모리슨 · 창래 리』(서울: 세창출판사, 2016), p. 233.

the Life of Frederick Douglass, an American Slave, 1845)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더글러스는 이 자서전에서 노예제도의 불합리함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 자유를 얻은 후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찾는 내용을 담아내어 인간의 참된 의지의 소중함을 드러낸다. 이러한 초기 노예자서전 문학형식은 흑인 문학의 뿌리로서 1970년대 미국의 흑인여성 문학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던 밤바라(Toni Cade Bambara), 허스턴(Zora Neale Hurston), 워커(Alice Walker) 등 많은 흑인 여성 작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1988년 풀리처상 수상작인 『빌러비드』(*Beloved*, 1987) 역시 많은 부분에서 초기 노예자서전의 내용과 역사를 계승하지만 모리슨은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는다. 파리 리뷰(*Paris Review*)와의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모리슨은 자서전 저자들이 백인후원자들로부터 내용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노예자서전’을 읽지 않는다고 밝힌다.²⁾ 따라서 19세기 노예자서전들이 흑독한 육체노동과 같은 노예의 외적인 삶을 강조한데 반해 모리슨은 노예들의 내적인 고통을 깊이 있게 조명하여 이제껏 침묵된 역사 속에서의 그들의 내적인 억압상태를 표현하려고 한다. 즉, 노예제도로 인하여 흑인들의 내면이 어떻게 철저히 파괴되었는지를 보여주고, 노예제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그 상처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객관적인 묘사가 아니라 소설 속 인물들의 기억과 그들의 말하기를 통하여 전달하려고 한 것이다. 모리슨은 흑인 작가로서 베일 뒤에 감춰져 있던 흑인들의 고통을 파헤쳐야 하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여긴다.

“20세기 후반을 살아가고 있는 흑인 여성 작가로서 저의 작업은 말하기엔 너무 고통스러운 연속된 일련의 일들 위로 드리운 베일을 어떻게 찢어버릴 것인가가 되었습니다.”³⁾

흑인작가로서의 모리슨의 소명은 이제껏 백인들뿐만 아니라 흑인들마저도 감추고 싶어 했던 자신들의 어두운 과거인 노예제의 역사를 제대로 조명하여 그들의

2) 이영옥, pp. 196-197에서 재인용.

3) Toni Morrison, “The Site of Memory,” in *Inventing the Truth: The Art and Craft of Memoir*, 2d ed., ed. William Zinsser (New York: Houghto-Mifflin, 1995), p. 91.

상처를 치유하고 미국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흑인의 자리를 제대로 찾아 주는 것이다.

미국이라는 자신의 나라의 역사에 대한 해안과 통찰력을 가진 모리슨의 글쓰기가 정치적인 성향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모리슨 역시 그것을 인정하며 상상력만 가지고 글쓰기를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며 최상의 작품은 정치적이어야 하며 동시에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술적이어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피력한 바 있다.

“나는 내 개인적인 꿈에 대한 의무감만을 채워주는 사적이고 폐쇄된 상상에 몰두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즉, 작품은 정치적이어야 합니다. 정치성을 작품의 추진력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은 현재 평론계에서 경멸적인 용어가 되었습니다. 즉, 예술작품이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라도 있으면 어찌된 셈인지 오염이 되었다고 합니다. 내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정치적 영향력이 전혀 없다면 이것은 오염된 것입니다. 문제는 장광설이 예술인 양 행세할 때 생깁니다. 내가 볼 때 최고의 예술은 정치적이기 때문에, 예술을 분명히 정치적으로 하면서 불가역적으로 아름답게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⁴⁾

이토록 항상 정치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모리슨의 작가적 소명의식은 “6천만 명 그리고 그 이상”(Sixty Million and More⁵⁾)이라고 쓴 『빌러비드』의 헌사에서부터 잘 나타나 있다. 이 숫자는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미 대륙으로 이송되기까지 선적 화물 같은 잔혹한 대우를 받았던 중간 항로(Middle Passage)과정에서 죽거나 이름 없이 노예로 살다간 미국의 모든 흑인을 나타낸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제사(epigraph)는 로마서 9장 25절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못한 자들을 사랑받은 이들이라 부르리라.”(I will call them my people, which were not my people; and her beloved, which was not beloved.)(47)라는 부분을 인용한다. 이처럼 모리슨은 셀 수 없이 사랑받지 못한 채 죽어간 노예무역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되살려 내 세상에 알리고 그들의 아

4) Terry Otten, *The Crime of Innocence in the Fiction of Toni Morrison* (Columbia: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1989), p. 82.

5) Toni Morrison, *Beloved*. 1987. Annotated by JaMo Kang (Seoul: Shinasa, 2011), p. 45. 앞으로 이 작품의 인용은 본문의 괄호 안에 페이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함. 텍스트의 번역은 『빌러비드』(김선형, 서울: 들녘, 2011)를 사용하였다.

품을 치유하고자 하는 것이다.

모리슨은 노예제로부터의 형식적인 독립뿐만 아니라 흑인들이 정신적인 독립을 누리고 있는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그녀는 200여년 노예생활을 거친 흑인들이 노예해방이 된 이후에도 노예적 사고를 갖고 있으며 백인이 자신들보다 우월하다는 열등의식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꿰뚫고 있다. 이것은 듀보이스(W. E. B. Du Bois)가 『흑인의 영혼』(*The Souls of Black Folk*, 1903)에서 언급했던 “이중의식”과도 상통한다.

“미국세계는 흑인들에게 진정한 자의식은 부여하지 않고 다른 세계가 밝혀준 것을 통해 스스로를 볼 수 있게만 허용합니다. 이 이중의식, 남들의 눈을 통해 항상 자기 자신을 보고, 경멸과 연민으로 자신을 대하는 세계의 잣대로 자신을 평가하는 감각은 특유한 감각입니다. 흑인은 미국인이자 흑인으로서 자신의 이중성을 언제나 느낍니다. . . .⁶⁾

듀보이스의 주장은 흑인들이 늘 타자의 시선과 잣대로 자신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이중적 분열감(two-ness)을 느끼며 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인인 동시에 검둥이라는 두 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흑인들은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인생의 주체가 되지 못한 채 주변부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모리슨은 이러한 상황에 처한 흑인들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정체성을 찾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모리슨은 『빌러비드』에서 자식을 살해한 끔찍한 과거를 안고 살아가는 주인공 시이드(Sethe)와 중심인물들이 어떻게 과거를 극복하고 정체성을 확립하여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가의 문제에 무게를 둔다. 그러나 인물들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억압된 과거를 기억해내는 것만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기억을 어떻게 해석하여 자아의 전체적인 연관 속에 위치시키는가가 정체성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소설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물들의 기억과 회상이 바로 과거의 기억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며, 이는 노예해방 이후에도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끔찍한 기억으로 인해 분열된 자아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미국 흑인들의 자아를 회복하는 시초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아무리 고통스러

6) W. E. Burghardt Du Bois, *The Souls of Black Folk* (Chicago: A. C. McClurg & Co. 1903), p. 3.

운 과거일지라도 과거와의 대면을 통해 자신의 관점에서 기억을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것이 새로운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방법인 것이다.⁷⁾

그리고 모리슨은 이 소설에서 중심인물들이 대면해야 하는 아픈 과거의 기억들을 ‘재기억’(rememory)이라고 부른다. 시이드의 입을 통해 얘기되는 재기억은 사라져 버리거나 남는 것이며, 남아서 떠오르는 것은 무한한 의식세계를 떠다니는 그림으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 주체가 사라질지라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시이드는 재기억을 통하여 과거는 현재에 존재하며 기억 속의 모든 것이 상기된다고 말한다.

시이드가 말하는 재기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억, 데카르트(Rene Descartes) 학파의 현대 계승자들이 말하는 기억의 개념과는 다르다. 데카르트 학파의 현대 계승자들이 말하는 기억은 항상 현재 속에 존재한다. 이전에 경험한 어떤 것을 기억할 때, 그것은 현재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전의 경험을 재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경험으로서, 그 경험은 과거의 경험의 복사, 복제로 불려지는 것과는 아주 다른 것이다.⁸⁾ 그래서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은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인 것이다.”⁹⁾

그러나 시이드의 재기억은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과거는 사라지지 않고 언제라도 현재로 들어와 현재를 대신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기억은 마음속에서 과거에 대한 생각을 하나의 그림으로 물질계 안에 재위치 시키는 것으로서 마치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듯이 현재 안에 과거가 구체적인 동시에 물질적으로 부활하는 행위이다.¹⁰⁾ 다시 말해, 재기억이란 물리적 힘이나 그 반대의 초월적 힘에 의해 작동되거나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초현실,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 없이 자발적으로 재생·소멸·유보되는 것이다.¹¹⁾

시이드를 비롯한 『빌러비드』의 등장인물들이 억압된 과거를 재기억하는 과정 없이 아픈 과거를 제대로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모리슨은 시이드에게

7) 위소영, 「토니 모리슨의 『빌러비드』에 나타나는 기억과 자아탐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석사학위 논문(2009), p. 5.

8) George Allan, “The Importance of the Past,” *A Meditation on the Authority of Tradition*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6), p. 29.

9) Allan, p. 29.

10) Emily Budick, “Absence, Loss, and the Space of History in Toni Morrison’s *Beloved*,” *Arizona Quarterly* 48.2 (Summer 1992): 118.

11) 이영철, 『토니 모리슨의 이슈와 시각』 (서울: 한빛문화, 2010), p. 98.

살해당한 딸인 빌러비드(Beloved)를 육화시켜 등장시킨다. 빌러비드의 존재는 바로 시이드의 재기억을 위한 필수적인 서사적 장치이다. 시이드는 재기억의 과정을 통해 현재에 존재하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게 된다. 즉, 시이드는 재기억을 통해 과거의 트라우마를 현재에 재위치 시켜 그것을 표현하고, 이러한 과정은 과거의 아픔을 경감시키고 자아회복의 단계를 향한 초석을 형성한다.¹²⁾ 이것은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상흔을 다시 기억하고 드러내어 이야기함으로써 과거를 치유할 수 있고 자아의 회복을 이룰 수 있다는 작가의 의도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노예해방 이후에도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분열된 자아를 안고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빌러비드』의 중심인물들이 재기억이라는 수단을 통해 자신의 과거와 대면하고 그 기억을 주체적으로 재구성해 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공동체와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여 자아를 회복해 가는 모습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선, II장에서는 시이드, 폴 디(Paul D) 그리고 덴버(Denver)의 현재의 고립된 생활을 분석하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와의 대면과 극복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III장에서는 폴 디와 시이드의 말하기 과정을 통해 파편화된 기억들이 서로 제자리를 찾아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게 되는 과정과 빌러비드의 등장으로 인해 재기억이 활성화되어 과거와 대면하는 과정을 통해 등장인물들의 심리가 조금씩 변화해가는 모습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덴버, 폴 디의 도움과 공동체의 유대관계 속에서 주인공 시이드가 과거의 상흔을 극복하고 온전한 자아를 회복하는 의식의 전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2) Cathy Caruth, *Unclaimed Experience: Trauma, Narrative, and History*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96), p. 11.

II. 고립과 단절

남북전쟁이 끝나고 1865년 공식적으로 노예해방이 이루어졌지만 흑인들은 더욱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육체는 자유로워졌지만, 노예로서 과거에 겪었던 경험들이 기억에 남아 정신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였다.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트라우마는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지배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없도록 한다. 모리슨이 『빌러비드』의 현재를 노예제가 붕괴되었지만 그 여파가 지속되는 남북전쟁 직후의 재건 시기로 설정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¹³⁾ 『빌러비드』의 중심인물들은 노예제도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상흔을 간직한 채 과거의 기억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들은 뼈아픈 노예제로 인해 정체성을 상실한 채 과거의 고통을 안고 현재에 머무르지만 현재를 살아갈 수 없는 고립 상태에 빠져있다. 그들의 고립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공간적인 고립일 뿐 아니라 과거의 사건과 연루된 정신적인 고립이다.¹⁴⁾

이 소설은 124번지가 과거의 지배를 받는 모습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1부는 “124번지는 원한이 서려 있었다.”(124 WAS SPITEFUL.)(50)로 아기유령이 Sethe에게 아픈 과거를 떠올리게 한다. “124번지는 소란스러웠다.”(124 WAS LOUD.)(232)로 시작하는 2부에서는 아기유령이 빌러비드라는 사람의 모습으로 육화되어 나타나 시이드에게 과거를 속속들이 기억하게 한다. “124번지는 고요했다.”(124 WAS QUIET.)(308)로 시작하는 3부에서는 빌러비드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124번지가 과거에서 벗어남을 나타내고 있다.

『빌러비드』는 남북전쟁이 끝난 뒤 8년 뒤인 1873년,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시의 블루스톤(Bluestone) 가 124번지에서 시작된다. 블루스톤은 남부와 북부의 경계선에 위치한 곳으로 남부의 노예들이 오하이오 강을 건너 처음 자유의 땅을 밟게 되는 곳이다. 이곳에서 시이드와 그녀의 막내 딸 덴버는 세상 누구와도 소통을 하지 않은 채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고 아기 유령만이 이 집에 출몰한다.

13) 이승은, 『토니 모리슨』(서울: 평민사, 1999), p. 153.

14) 김진숙, 「Toni Morrison의 *Beloved* 연구: 재기억의 의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0), p. 24.

이 유령은 시이드에 의해 살해된 딸의 영혼으로 제도적으로 노예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노예제의 해악이 흑인들의 현재의 삶에 미치고 있음을 상징하는 존재이다.

124번지는 원한이 서려 있었다. 아기가 뱀어내는 독기가 충천했다. 집안의 여자들은 다 알고 있었고, 아이들도 모르지 않았다. 몇 년 동안 식구들은 각자 나름대로 그 독기를 참고 지냈지만, 1873년쯤이 되자 희생자는 시이드와 딸 덴버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p. 50)

124번지가 처음부터 외부 세계와 고립되어 있던 곳은 아니었다. 처음 이곳은 시이드의 시어머니 베이비 석스(Baby Suggs)가 막내아들 할리(Halle)의 노동의 대가로 노예 신분을 벗어나 북부로 온 후 처음 정착한 곳이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기 이름 앞에 영예로운 호칭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 없는 설교자로서 흑인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한다. 그녀는 상처받은 흑인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진심어린 마음을 나누어준다. 그래서 124번지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활기가 넘쳐나는 대화의 장이고 이웃들의 안식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예전에는, 분주하던 124번지가 문을 닫아걸고 모든 게 끝나기 전에는, 베일을 덮고 똑똑 문을 잠그고 유령의 장난감으로 전략해 상처 받은 이들의 보급자리가 되기 전에는, 활기차고 분주한 거점이었고 그곳에서 베이비 석스는 성직을 수행하며, 사랑받고, 신중하게 배려받고,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음식으로 배불리 먹었으며, 야단을 맞다가 또 위안을 받기도 하며 살고 있었다. 스토브에서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나 되는 냄비가 끓고 있었고, 등잔불은 밤새도록 타올랐다. 이방인들은 이곳에서 휴식을 취했고,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신발을 신어보곤 했다. 필요한 사람에게 전갈을 남기면, 머지않아 누군가가 그 전갈을 받으러 찾아왔다. (p. 142)

시이드가 노예생활을 하던 켄터키(Kentucky)주의 농장 스위트 홈(Sweet Home)을 탈출하기 위하여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먼저 124번지로 보내게 낸다. 그리고 남편과 자신은 나중에 탈출하기로 하였으나 약속한 시간에 남편 할리가 나타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시이드는 아이에게 젖을 쥐야 한다는 강한 모성애만으

로 만삭의 몸을 이끌고 탈출하여 도망 중 태어난 딸 텐버를 데리고 만신창이에 된 채 이곳에 도착한다. 그녀는 노예의 몸에서 풀려서 28일간을 이곳에서 편안히 휴식하고 이웃들과 진심어린 마음을 나누며 네 명의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때까지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때까지도. 하지만 줄린 눈을 한 두 아들과 ‘벌써 기나?’라는 별명의 딸아이가 방으로 들어오자, 이젠 꿈이든 생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져버렸다. 시이드는 아이들 밑에 깔리기도 하고, 에워싸이기도 하고, 아이들 위에 엎드리기도 했지만, 아이들 모두와 함께 라는 게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다. (pp. 149-150)

마흔, 원 명에 달하는 다른 니그로들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의 세계관과 습관들을 알게 되었다.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자기 일처럼 그네들의 즐거움과 슬픔을 나누다 보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어떤 이는 시이드에게 알파벳을 가르쳐주었다. 또 어떤 이는 자수를 가르쳐주었다. 모두들 그녀에게 새벽에 일어나 그날 하루 무슨 일을 할까 스스로 결정하는 기분이 어떤지를 가르쳐주었다. 그렇게 그녀는 할리를 기다리는 시련을 견뎌나갔다. 차츰차츰 아주 조금씩, 124번지에서 또 공터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이드는 자기 자신을 되찾게 되었다. (p. 151)

시이드는 28일 동안 아이들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었고 이웃들로부터 글과 자수를 배우며 타인과의 관계형성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124번지는 흑인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이웃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고립된 곳으로 제시된다. 124번지가 이웃들이 기피하는 고립된 장소가 된 것은 시이드가 강을 건너 124번지로 올 때 도움을 주었던 스탬프 페이드(Stamp Paid)가 생후 3주 된 텐버를 위하여 덤불숲을 헤치며 정성스럽게 따온 두 양동이의 블랙베리가 단초가 되었다. 베이비 석스는 두 양동이의 블랙베리로 페이스트리 반죽을 만들어 이웃들과 나누고자 하였고 그것은 아흔 명의 손님을 치르는 잔치가 되었다. 아흔 명의 손님들은 한도를 넘은 지나친 환대에 마음이 불편해졌고, 베이비 석스와 노예로써 온갖 역경을 겪으며 살아온 자신들과는 처지가 너무 다름을 느껴 124번지에 반감을 품게 된다. 흥청망청한 잔치가 벌어

지면서 이웃들은 베이비 석스를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된 것이다. 지나친 환대는 자신의 소유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이웃들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¹⁵⁾ 같은 노예 출신이기는 하지만 베이비 석스는 백인에게 채찍으로 맞아본 적도 없었으며 아들이 노비문서를 사서 자유를 선물하였고, 흑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백인인 보드윈(Bodwin) 남매로부터 2층에 우물까지 딸린 집을 임대받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웃음소리로 들썩거리던 124번지 때문에, 아흔 명을 채우고 남은 자선과 양식으로 넘쳐나는 124번지 때문에 그들은 화가 났다. 도가 지나쳐, 라고 그들은 생각했다. 그걸 다 어디서 갖고 온 거지, 베이비 석스는? 성녀 베이비 석스라고? 어쩌서 그 여자와 그 여자네 집이 세상 만사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지? 어쩌서 그 여자가 하는 일은 언제나 뭐든 옳은 거지? 충고를 해주고, 진갈을 전해주고, 병자를 치료하고, 탈주자를 숨겨주고, 사랑하고, 요리하고, 요리하고, 사랑하고, 설교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누구나 가리지 않고 사랑해주고, 그게 자기가 할 일이고 그 일을 할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것처럼 구는 거냐고. (p. 199)

이웃들과는 다른 베이비 석스만의 특권들이 124번지와 공동체와의 결속을 끊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날 스위트 홈의 새 주인인 학교선생 일당이 도망노예법에 따라 시이드를 잡으러 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웃들은 124번지에 알려주지 않는다. 결국 시이드는 자신의 딸에게는 인간이면서 동물로 취급받는 노예의 삶을 대물림 하고 싶지 않다는 일념으로 셋째 딸의 목을 톱으라 잘라 살해한다.

헛간 안에서는, 여자 깜둥이가 피칠갑을 한 아이 하나를 한 팔로 가슴에 꼭 껴안고 다른 팔로 또 다른 영아의 발목을 붙잡고 서 있었고, 그녀의 발치에서 남자아이 둘이 톱밥과 흙먼지를 뒤집어쓰고는 피를 줄줄 흘리고 있었다. 여자는 그들 쪽을 보지도 않았다. (p. 213)

자신이 사랑하는 자식을 죽일지언정 노예로서 노동과 성적인 착취를 강요받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재 의미를 상실케 하는 백인들의 손에 자식들을 넘겨줄 수가 없

15) John D. Caputo, *Deconstruction in a Nutshell: A Conversation with Jacques Derrida* (New York, NY: Fordham UP, 2002), p. 111.

있던 것이다. 시이드가 어린 딸을 죽인 것은 노예로서 살아가야 하는 “정신적 죽음”의 상태로부터 딸을 구한 것으로 해석된다.¹⁶⁾ 자식 살인이라는 행동을 통해 시이드는 노예제도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인간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시이드가 스위트 홈을 탈출하기 전에 학교선생은 시이드의 머리둘레와 엉덩이 둘레를 재고, 이빨의 수를 세어보면서 시이드를 동물처럼 취급한다. 학교 선생은 자신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동물에게 적용되는 과학적인 기준으로 노예들의 신체적 특징을 기록한다.¹⁷⁾ 그리고 학생들에게 시이드의 인간적 특징과 동물적 특징을 공책에 기록하게 한다. 시이드는 이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고 동물로 여겨지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받는다. 이 일로 시이드는 노예로서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며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스위트 홈에서의 삶은 인간으로서의 의미가 없으며 자신의 아이들은 성장하자마자 노동하는 동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또한 학교 선생 조카들에게 젖소 취급을 받으며 자신의 아기를 위한 젖을 빼앗기고 가아너(Garner) 부인에게 이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만삭인 채로 채찍으로 매를 맞고 등에 벚나무 줄기 같은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이 자신이 겪은 일들을 그녀의 아이들이 다시 겪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그녀의 모성애를 자극한다. 그래서 그녀는 자유를 찾아 스위트 홈을 탈출하게 되고, 자신들을 잡으러온 백인들 앞에서 자식을 죽이는 행동을 하게 된다.

학교선생이 우리를 끌고 가는 대로 두고, 엉덩짝의 치수를 재게 하고, 결국 매질로 엉덩짝이 갈기갈기 찢길 때까지 그냥 내버려두는 길 말이야? 내가 다 당해봐서 알아. 세상에 두 발로 걷는 인간이건, 쪽뻗어 쓰러진 시체건, 너한테 그런 기분을 느끼게 만들 수는 없는 거야. 절대 너는 안 돼. 내 자식은 절대 안 돼. 네가 내거라는 얘기는, 나도 네 것이라는 말이란다. 내 자식들 없이는 절대 숨을 쉬지 못할 거야. (p. 270)

16) Barbara Schapiro, “The Bonds of Love and the Boundaries of Self in Toni Morrison’s *Beloved*,” *Contemporary Literature* 32.2 (1991): 198.

17) Rafael Perez-Torres, “Knitting and Knotting the Narrative Thread *Beloved* as Postmodern Novel,” *Modern Fiction Studies* 39.3 (1993): 696.

시이드는 자신이 딸을 죽인 건 노예제에서 자식을 구출해 내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자식을 살해한 행위는 백인주인이 그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긴 것처럼 자식도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여긴 잘못된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다.¹⁸⁾ 자식은 또 다른 독립된 인격체이며 부모조차도 그들의 삶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시이드의 영아 살해사건 이후, 베이비 석스의 믿음, 사랑, 상상력과 커다랗고 드넓은 심장은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녀는 죽는 날까지 병상에서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채 얼마 남지 않은 기력을 색채를 음미하는 데 쏟아 붓는다. 베이비 석스의 장례식 날 마을 사람들은 비극의 현장과 범죄의 현장인 124번지에 들어오지 않게 되고, 124번지는 완전히 차단된 고립된 장소로 변화한다. 그리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 집에 유령이 깃든다.

병아리콩이 가득한 주전자도 또 마룻바닥에 엎어져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다거나, 소다크래커가 가루로 바스러져 가지런히 문지방을 따라 한 줄로 뿌려져 있다거나 하는 짓거리를 도저히 더 참고 살 수가 없었다. 가끔씩 찾아오는 잠잠한 휴지기를 기다릴 생각도 전혀 없었다. 가끔은 몇 주일씩, 심지어 몇 달씩이나 아무 일도 없이 조용히 지나가는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천만의 말씀. 소년들은 당장 달아나 버렸다-집한테 두 번 다시 참지 못할 모욕을 당한 그 순간 끝장을 봤다. (p. 50)

쳐다보기만 했는데도 거울이 산산조각 나고 케이크에 조막막한 손자국이 찍히는 등 124번지에는 시이드가 살해했던 딸인 아기 유령의 독기가 충천해있었고 그 지방 사람들은 124번지를 지날 때면 말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시이드의 두 아들 하워드(Howard)와 뷰글러(Bugular)는 시이드가 자신들도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아기 유령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상황을 견딜 수 없어 차디찬 한겨울에 집을 떠나갔고 베이비 석스도 형제들이 떠난 후 금세 세상을 떠났다. 유령이 등장하는 것은 유령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아프리카 특유의 문화적 측면을 드러내며 동시에, “노예제도 아래의 끔찍한 경험을 유령의 존재로 표현함으로써 유령의 실체를 믿기 어렵듯이 노예제도에서의 고통 또한 믿기 어려울 정도임을 암시

18) Deborah Horvitz, “Nameless Ghost: Possession and Dispossession in Beloved,” *Studies in American Fiction* 17.2 (1989): 163.

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¹⁹⁾

시이드는 마지막으로 남은 자식인 텐버를 위해 죽도록 일을 하고 최대한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그러나 시이드는 아기 유령의 존재 자체만으로 자신의 딸을 죽였던 과거에 현재의 의식을 지배당하여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하지만 시이드의 뇌는 미래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과거의 짐에 짓눌리고 더 많은 과거에 굶주려서 다음날을 계획하기는커녕 상상할 여유조차 없었다. (p. 124)

시이드의 과거는 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녀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회피하고 있으나 과거의 아픔은 그녀를 미래로 나아갈 수 없도록 하는 족쇄가 되어 그녀를 짓누르고 있다.

누비이불의 오렌지색 네모 두 개 외에는 색깔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온통 흙갈색과 암청 회색의 어두컴컴한 집에서 시이드는 베이비 석스가 왜 그렇게 색깔에 목말라 했는지 똑똑히 알 수 있었다. 시이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색채는 아기의 목에서 쏟아져 나오던 빨간색 선혈과 핏덩이 딸아이의 묘석에 점점이 박혀 있던 분홍색 돌조각들이다. 그 때 이후로 시이드는 모든 색채를 상실한 채 고립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억압된 기억들은 파편화되어 시이드의 뇌리에 문득 문득 떠오르게 되고 그녀를 괴롭힌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이드는 기억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마치 그림처럼 과거는 현재보다 더 선명하게 그녀 앞에 펼쳐진다.

일곱 글자(Beloved)를 새기는 데 10분. 10분을 더 내줬으면 ‘한없이(Dearly)’라는 글자도 새길 수 있었을까? 그때는 차마 물어볼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그럴 수도 있었다는 생각은 그후로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다. 20분, 아니 30분이라도 시간을 냈더라면, 빠짐없이 다 새길 수도 있었을 텐데. (p. 52)

아기의 묘비에 “Beloved”라는 이름을 새기기 위해 석공에게 자신의 몸을 내주었

19) 이영옥, pp. 222-23.

던 일이 떠오르고 좀 더 시간을 내주었다면 “Beloved”라는 일곱 글자 앞에 “Dearly”라는 글자를 새길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괴로워한다. 또한 그녀는 무의식속에서 스위트 홈이 진짜 스위트 홈이었던 것 마냥 플라타너스 나무들에 대롱대롱 목 매달린 청년들의 모습보다 대신 아름다웠던 자연을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시이드는 그런 자신의 기억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느닷없이 눈앞에 떠오르는 거다. . . . 아니 밭 밑 웅덩이에서 히어보이가 물장구를 치는 소리, 그러다가 별안간 눈앞에 ‘Sweet Home’이 흰히 펼쳐지고 펼쳐져 드넓은 파노라마처럼 드러나는 거다. 정말이지 그 농장의 잎새 한 장만 봐도 비명을 지르고 싶은 심정이건만, 눈앞의 그 광경은 뻔뻔스럽게도 찬연한 아름다움 그 자체다. 생전 처음 보는 듯한 그 무시무시한 광경 앞에서, 그만 어찌면 지옥도 꽤나 예쁜 곳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pp. 53-54)

시이드는 자신의 딸을 죽였던 충격으로 인해 시간의 흐름을 거부한 채 과거 속에 묶여 있고 과거의 상처들을 지우려고 노력한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한 마디 한마디 가슴 아프지 않은 말이 없고 과거 속의 모든 것은 고통스러웠고, 잃어버린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시이드는 공동체 사회로부터도 외면당한 채 단절되어 철저히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트라우마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한 정신적인 고립 상태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시이드와 스위트 홈에서 노예로 함께 생활했던 폴 디의 경우, 시이드처럼 어느 한정된 공간에 처해 있지 않아 자유로워 보이지만, 세상에 의지할 곳 없이 홀로 떠돌아다니는 또 한명의 고립되고 외로운 존재이다. 폴 디는 어릴 때 부모와 헤어져 20년 동안 스위트 홈에서만 지내왔다. 그가 아는 사람들은 이복형제 폴 에이(Paul A), 폴 에프(Paul F), 가아너 부부, 같은 노예인 식소(Sixo), 할리, 부엌일을 하는 베이비 석스가 전부였다. 그리고 할리가 5년 동안 자신의 일요일을 바쳐 일한 대가로 어머니의 노비문서를 사는 바람에 베이비 석스가 떠나게 되자 시이드가 오게 된다. 이 사람들이 폴 디가 아는 세상의 전부였고, 흑인 대가족을 만날 때면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질투와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왔다.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기억나지 않는다. 아버지는 얼굴 한 번 보

지 못했다. 폴 디는 가아너에게 팔려가 농장에 머물게 된 세 사람의 이복형제들(같은어머니-다른 아버지) 중 막내였다. 20년 동안 그들은 농장을 떠나는 것을 금지당한 채 살아왔다. 친척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고 스위트 홈에서 만난 사람들이 인간관계의 전부였던 폴 디는 흑인 대가족을 만날 때마나 경외심과 질투가 범벅된 심정으로 바라보았다. (p. 289)

폴 디가 아는 유일한 세상이었던 스위트 홈의 농장주 가아너씨 부부는 조금 다른 노예제도를 행하였다. 그들은 총 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었고 언성을 높이는 일도 없었다.

그러나 갑자기 가아너씨가 죽고 나자 모든 게 달라졌다. 가아너 부인은 농장을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폴 에프를 팔았고 공부를 좀 했다는 시누이 남편인 학교선생을 불렀다. 새로운 관리자인 학교선생은 노예들이 누렸던 권리를 빼앗고 그들을 동물처럼 다루어 노예들을 폐인으로 만들어 버렸다. 스위트 홈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곳을 “제도적 악의 공간”²⁰⁾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다.

그의 삶이 없이는, 그들 모두의 삶이 산산조각으로 박살나는 것이었다. 그게 노예제도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힘의 절정에 달했을 때, 키 큰 사내들보다 더 크고, 대부분의 사내들보다 더 강인했던 그, 폴 디의 날개를 그들이 꺾었다. 처음에는 소총을 빼앗아가더니, 다음에는 생각을 빼앗아갔다. 학교선생은 흑인들의 충고를 절대 듣지 않았다. (p. 290)

학교선생의 악행을 피해 폴 디와 다른 노예들은 북부로 탈출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그 과정에서 친구 식소는 불에 타 죽었고, 할리는 헛간에서 자신의 아내인 시이드가 학교선생 조카들에게 동물로 취급받으며 강간당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폐인이 되었다. 노예제의 폭력으로 인해 남성으로서의 자존감을 모두 상실한 흑인 남성들의 마지막 몸부림은 죽거나 미쳐버리는 것이다.²¹⁾

폴 디는 쇠재갈을 물고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그를 더욱 견디기 힘들게 하였던 것은 그가 더 이상 남자가 아니라는 박탈감이다. 수탉 미스터(Mister)

20) 이영철, 『아프리카계 미국문학의 노예서사』 (서울: 동인, 2015), p. 205.

21) 오향미, 「토니 모리슨의 『빌러비드』에 나타난 자아회복」, 세종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석사학위논문(2016), p. 15.

마저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낀다. 그는 학교선생이 자신을 속속들이 바꿔버려
뭔가 다른 존재가 되었고 햇빛을 받으며 물통 위에 앉아 있는 수탉만큼도 못하
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미스터, 그 녀석은 너무나 뭐랄까.....자유로워 보였어. 나보다 훨씬
나아 보였지. 강인하고, 더 터프하고. 그 시원찮은 자식은 제힘으로
알을 깨고 나올 힘도 없었는데, 그 녀석은 그래도 왕이었고.....나
는.....“ (p. 126)

자기 힘으로는 알을 깨고 나올 수 없어서 폴 디가 껍질을 깨주어야 했던 미스터
가 자신보다 자유롭고 남성다워 보인다. 이것은 폴 디가 처한 극한적 상황이 그
의 자아를 얼마나 왜곡하는지를 보여준다.

폴 디는 다른 농장으로 팔려갔고 새 농장의 주인 브랜디와인(Brandywine)이
다른 노예들과 폴 디를 묶어 버지니아(Virginia) 주로 가던 도중 그는 새 주인을
죽이려고 한다. 결국 그는 남부의 조지아(Georgia) 주 알프레드(Alfred) 수용소에
감히게 된다. 그 곳은 죄수 46명이 하나의 쇠사슬에 묶여 함께 일하고 최악의 환
경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곳으로 한 명의 죄수라도 탈출을 기도하면 마흔여섯
명 전원이 칭칭 감은 사슬에 끌려가서 무차별 사격의 희생양이 되어야만 한다.

86일이 지나자 끝장이 났다. 삶은 죽어버렸다. 폴 디는 삶의 꿈무니
를 날마다 후려패서 끝내 끄끄거리는 신음소리조차 나지 않게 만들
어버렸다. 86일이 지나자 폴 디의 두 손은 조용해졌고, 쥐들이 버석
거리는 밤이면 다음날 새벽녘의 ‘하이이이이! 소리와 반가운 쇠메자
루를 쫓 시간을 얄전하게 기다리게 되었다. 삶은 죽은 자를 갈아뭇
개고 계속되었다. (p. 168)

폴 디는 백인 간수들의 무참한 구타와 폭행을 견디며 단 한 순간도 탈출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자포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알프레드 수용소에 수 일간 폭우가 쏟아지자 죄수들은 상자 속에 가둬진 채
구덩이에 갇혀 있게 된다. 비로 인해 구덩이가 함몰되고 이 때 마흔여섯 명의 죄
수들은 숨죽여 잠수를 하고 진흙 속을 뚫고 비와 어둠을 믿고 탈출을 하게 된다.
그들은 장미의 이름을 지닌 체로키족의 야영지 근처에 다다르게 되고 그들의 도

움을 받으며 휴식을 취하게 된다. 폴 디는 결국 자유롭고, 자비로운 북부로 가기로 결심한다.

“저 나무에 핀 꽃들을 따라가시오. 꼭 나무에 핀 꽃들만 따라가야 하오. 꽃들이 떨어지면, 자네도 갈 테니까. 꽃들이 다 지면 아마 원하는 곳에 다다르게 될 거요.” (p. 171)

폴 디는 체로키 인이 가르쳐 준대로 꽃길을 따라 걷고 또 걸어 결국 자유인이 되었고, 지나가는 마을에서 잠시 생활하며 머물지만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한다. 그는 노예제도의 경험으로 인해 얽매이고 간혀있는 삶을 거부하고 통제와 제약이 없는 삶을 지향하기 때문이다.²²⁾ 그래서 그는 어떤 여자라도 두세 달 이상 함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고 언제든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미련 없이 떠났다.

엘프리드 수용소 이후로 그는 뇌의 상당 부분을 닫아버리고 그저 걷고, 먹고, 자고, 노래 부르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만 작동시키며 살고 있었다. (p. 92)

그후로 얼마간 시간이 지나자 그는 엘프리드 수용소, 조지아 주, 식소, 학교선생, 할리, 형제들, 시이드, 미스터, 강철의 맛, 버터의 기억, 히코리의 냄새, 공책들을 하나하나씩 가슴속에 자리한 담배깡통 속에 집어넣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24번지에 다다랐을 때쯤에는, 이미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깡통 뚜껑을 딸 수 없게 되어 있었다. (p. 172)

그는 자신의 “붉은 심장”(172) 대신 가슴 속에 자리한 담배깡통 속에 치욕스러운 과거를 묻어둔 채 떠돌이처럼 살아간다. 담배깡통 속에 가둬 둔 과거의 기억은 그를 나약한 존재로 만들었고 시이드를 만나기 전까지 그 깡통속의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런 그가 124번지에 다다르게 되었고 18년 만에 스위트 홈의 유일한 생존자인 시이드와의 만남을 통해 폴 디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희열과 기쁨을 경험한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방랑자로서의 삶을 정리하고 미래를 시이드와 함께 하

22) 김진숙, p. 22.

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는 할리의 아내가 살아서, 머리카락을 다 드러내고 맨발로 신발과 양말을 손에 든 채 집 모퉁이를 돌아 나타나는 모습을 보던 그 순간의 희열을 자기도 설명할 수갈 없었다. 꼭 닫혀 있던 뇌의 일부가 기름칠한 자물쇠처럼 매끄럽게 스프르르 열렸다. (p. 92)

“잠자리 따위는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어. 말했잖아, 나는 걸어다니는 방랑자라고. 나는 이쪽 방향으로 7년이나 걸어왔어. 이 근처에 안 가본 데가 없어. 북부, 남부, 동부, 서부. 이름 없는 땅에도 밭을 디뎠고 절대 한 군테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어. 하지만 여기 와서 저기 현관 앞에 앉아,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때, 내가 찾아 헤맨 건 이곳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당신을 향해 왔던 거야. 우리는 함께 삶을 꾸릴 수 있어. 삶을 꾸릴 수 있다고.” (p. 98)

폴 디는 시이드와의 만남을 운명적이라고 생각하고 다시금 그녀와의 미래를 꿈꾸게 된다. 그러나 아직 시이드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에는 폴 디의 마음 역시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다. 시이드가 자신의 딸을 죽였던 순간에 머물러있는 것처럼 폴 디 역시 아직 마음속 담배깡통 속에 있는 상처들을 다 털어버리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시이드와의 대화 중 알프레드 수용소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자 알프레드 수용소로 다시 돌아간 기분이 되어버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대화를 중단한다.

그는 자신의 과거 중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을 아직 치유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 때문에 그는 여전히 시이드와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정신적인 고립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이드가 오하이오 강을 건너며 백인 소녀 에이미 덴버(Amy Denver)의 도움을 받아 배에서 낳은 마지막 남은 딸인 덴버 또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영아 살해사건 이후로 이웃들에게 124번지는 금기시 되어 왔기 때문에 덴버 또한 철저히 고립된 상태로 성장하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오빠들은 집을 떠났고 가장 의지했던 베이비 석스 할머니도 “세상에 불운이란 없으며 오직 백인이 있을 뿐이다.”(161)라는 말을 남긴 채 사망한다. 그리고 어머니인 시이드조차도 자신이 물어버린 과거 속에 묶

여 있어 사실상 텐버가 의지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시이드가 그녀를 보호하면서도 텐버의 정신적인 성장에는 관심이 없는 것은 그녀의 지나친 모성애 때문이다. 즉, 텐버에 대한 시이드의 사랑은 자식의 독립성과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소유적인 애착이라 볼 수 있다.²³⁾ 텐버에게 유일한 친구는 죽은 언니의 아기유령이고 그녀를 “외롭고 혼쫓난 유령”(61)이라고 말하며 자신과 같은 처지라고 여긴다.

그 모든 작별들-처음에는 오빠들 그리고는 할머니-그 모든 작별들은 하나같이 심각한 타격을 안겨준 상실이었다. 근처에는 기꺼이 놀이에 끼워주거나 현관 앞 포치에 앉아 함께 다리를 늘어뜨리고 앉아 있어줄 만한 또래들이 하나도 없었다. (p. 61)

텐버도 오랫동안의 외로움과 시시때때로 퍼붓는 아기 유령의 독기에 지쳐 집밖으로 나가는 시도를 한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이 공부하러 다니는 레이디 존스(Lady Jones)의 집을 알게 되어 찾아가 그 곳에서 거의 1년 동안 친구들과 함께 철자법과 셈을 배운다. 텐버는 매일 아침 연습을 하고, 매일 오후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그 오후의 두 시간은 너무나 행복해서 반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런 행복감을 끝장낸 건 반 친구였던 넬슨 로드(Nelson Lord)의 질문 때문이다.

“너희 어머니는 살인죄로 감옥에 갔다 오지 않았어? 네 엄마가 감옥 살 때 너도 같이 가지 않았던 거야?” (p. 162)

그녀는 단지 호기심에 물어본 넬슨 로드의 질문에 어머니 시이드에 대한 살인 의혹은 커져가고 결국 하워드와 뷰글러가 도망간 이유가 아기 유령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된다.

텐버는 용기를 내어 넬슨 로드가 했던 질문을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해보았지만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고, 그때부터 텐버는 학교에 가지 않게 된다. 그녀는 대답을 듣기보다 차라리 귀머거리가 되는 편을 택한 후, 아기 유령만 찾아 헤매

23) 박순정, 「소유적 관계가 자아형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빌러비드를 중심으로」, 『영어영문학연구』 34 (2008): 37.

고 다른 모든 것에 대해 눈과 귀를 닫아버린다. 덴버가 청력을 잃은 현상은 수치스러운 과거를 외면하고자 하는 생체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²⁴⁾

용기를 내어 넬슨 로드가 했던 질문을 해봐도 시이드의 답변커녕 베이비 석스 할머니의 말씀 한마디도 듣기가 힘들었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2년 동안 그녀는 절대 뚫리지 않는 단단한 침묵의 벽에 에워싸여 살았고. . . (p. 160)

그렇게 2년간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살던 그녀는 어느 날 계단 위로 기어 올라가는 발걸음 소리가 가까운 데서 치는 벼락처럼 울리는 걸 듣게 된다. 덴버의 청력이 아기 유흐이 계단을 오르는 소리에 다시 돌아온 것이다.

덴버는 어머니를 사랑하기는 하지만 그녀가 언니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신도 죽일지 모른다는 공포심을 동시에 갖고 있다. 밤마다 자신의 목을 자르는 악몽을 꾸고 어머니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깎아 주는 동안 졸리지만 행여 죽게 되어 깨어나지 못할까봐 잠들지 못한다. 덴버는 죽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 가식적으로 어머니를 더 많이 사랑하는 척 하며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 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루하루 긴장감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엄마한테는 어쩐지 제 자식을 죽여도 될 것 같은 그런 뭔가가 있어요. 그동안 내내, 저는 엄마로 하여금 언니를 죽여도 괜찮게끔 만든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겁이 났지요. 그 일이 뭔지도 모르고, 누가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세상에 엄마가 다시 그런 짓을 하게 만들 만큼 끔찍한 일이 또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게 어떤 일인지 저도 알아야 하겠지만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게 뭐든, 이 집 밖에서, 이 마당 바깥에서 오는 거겠지요. 그건 마음만 먹으면 이 마당으로 곧장 쳐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집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면서 마당을 감시한답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저까지 죽이지 않아도 되도록 말이에요. (p. 273)

덴버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머니가 자식을 죽이게 했던 외부 세계의 일들이다. 그

24) Shawn Peterson, *Loving Mothers and Lost Daughters: Archetypal Images of Female Kinship Relations in Selected Novels of Toni Morrison* (Salem: UP of Oregon, 1993), p. 139.

래서 덴버는 외부와의 단절을 선택하고 124번지를 나가지 않는다. 덴버가 현실의 고립과 외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집 뒤 들판에 있는 회양목이 만들어내는 비밀스런 숲속의 방이다. 그 공간은 덴버에게 보호와 치유, 그리고 새로운 활력을 제공해주는 은신처로써의 역할을 한다.²⁵⁾

상처받은 세상의 상처로부터 단단히 봉해진 그 나무그늘 속에서, 덴버의 상상력은 그 나뭇의 굽주림과 그 나뭇의 양식을 만들어냈고, 외로움에 지쳐 나가떨어질 지경이던 덴버는 게걸스럽게 그에 탐닉했다. 그녀는 외로움에 헤어져 너털너털해질 지경이었다. 살아있는 녹음의 벽 속에 몸을 숨기고 보호받고 있노라면, 자신이 완숙하고 명징하다는 기분이 들었고 구원은 소망만큼이나 수월하게 얻을 수 있었다. (pp. 78-79)

덴버는 이곳에서 할머니가 아버지에 대해 해주었던 얘기로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하며 아버지를 천사 같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신들을 구하러 꼭 올 거라고 확신한다. 그런 덴버에게 아버지가 아닌 폴 디의 등장은 처음부터 폴 디에 대한 적대감을 품게 한다. 게다가 폴 디는 자신의 마지막 동반자인 아기유령을 쫓아내 버렸고 그와 어머니만이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덴버는 폴 디가 자신의 어머니마저 빼앗아갔다고 생각하며 외로움과 비참함을 느낀다. 덴버는 철저히 혼자일 뿐 아니라 정상적인 가족관계와 인간관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장하여 정체성이 불안한 상태이고, 소외되고 단절된 자신의 삶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 더욱이 그녀는 폴 디의 등장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시이드와 폴 디는 육체적으로는 자유로운 상태에 놓여있지만 과거와 관련된 억눌리고 아픈 기억들을 자연스럽게 공론화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들의 의식을 가로막게 하는 정신적인 노예상태에 처해있다. 다시 말해서, 노예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은 자유로운 자아를 갖기에는 아직 그들을 막고 있는 가슴의 응어리가 풀리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덴버 또한 노예제도를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공동체와 단절된 채 정상적인 사람들과 교류 없이 아기 유령을 벗 삼아 성장하였기

25) Michele Bonnet, "To take the sin out of slicing trees': The Law of the Tree in *Beloved*," *African American Review* 31.1 (1997): 42.

때문에 제대로 된 자아를 정립하지 못한다. 즉, 시이드, 폴 디, 텐버는 공동체와의 긴밀한 연결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단절된 채 자신만의 공간에 갇혀있다. 결국, 시이드, 폴 디 그리고 텐버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에 깊이 침투해 있는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제대로 기억해내고 대면하여 건강한 자아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III. 재기억을 통한 과거와의 대면

자아의 회복은 과거의 상처를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 그 상처와 아픔을 내려놓을 때 이루어 질 수 있다. 기억의 공론화를 통해 그 기억을 되돌아보고 재정립하여 올바르게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타인의 이해와 공감은 닫혔던 문을 열 수 있는 큰 힘이 되기 때문이다. 모리슨은 달링(Marsha Darling)과의 인터뷰에서 집단적 공유의 중요성을 이야기 한다.

그런데 강요되지 않으면 흑인들은 아무도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공론화하려 하지 않고, 기억하려 하지 않고, 언급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 인간다운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이 이것을 정작 말할 때, 들을 때, 볼 때 그리고 나눌 때, 이들은 단 하나가 아니라 둘, 셋 그리고 넷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정보들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면 이들 개인들과 집단이 치유됩니다.²⁶⁾

물론 이러한 과정을 통하더라도 과거의 상처로부터 완전히 치유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과정은 현재의 삶에서 과거를 분리시켜 자신의 온전한 삶이 얼룩지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거 속에 살고 있는 등장인물들에게 과거를 재기억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소설의 등장인물들은 빌러비드를 통해,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파편화된 기억들을 한 데 모아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과거를 치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빌러비드』는 직선적인 시간 개념이 아닌 인물들이 떠올리는 기억들에 의해 진행되는 플래시백(falshback) 서사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플래시백은 20세기 초 이래 지속되어온 ‘의식의 흐름’(Stream of Consciousness)

26) Masha Jean Darling, "In the Realm of Responsibility: A Conversation with Toni Morrison," *Conversation with Toni Morrison*, ed. Danille Taylor-Guthrie (Jackson: UP of Mississippi, 1994), p. 248.

기법을 이용한 소설들의 자아의식의 탐구과정에서 나타나는 방식이 아닌, 제도적 폭력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되살려내기 위해 기억을 통해 나타나는 방식이다.²⁷⁾ 이 기억들은 노예해방 후인 1873년을 기점으로 시이드의 어머니와 빌러비드가 겪었던 200년 전 중간항로 시기의 기억까지도 아우르고 있다. 등장인물들이 이 시기의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는 것을 모리슨은 기억이라는 말 대신 재기억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고 이것의 의미는 시이드의 입을 통해 드러난다.

난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 시간은 내게 너무 힘들어서 난 시간을 믿을 수가 없어. 어떤 것들은 가버린다. 지나가 버리지. 어떤 것들은 그냥 머무르지. 난 그것이 나의 재기억이라고 생각했었지. 너도 알거야. 어떤 것들은 너도 잊어버렸지. 그런데 어떤 것들은 잊어버리지 않지. 그렇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냐. 장소, 장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만일 어떤 집이 불타버리고 나면 그 집은 없어지지만 그 장소는, 그것의 그림은, 그대로 남는단다. 나의 재기억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거란다. (p. 86)

모리슨은 재기억의 개념을 통해 노예해방 이후에도 흑인들에게 남아있는 잔혹한 심리적, 정서적인 상처의 폐해를 고발하고 현재에도 그 상처는 아물지 않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것임을 강조하려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이라는 말 대신 재기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과거는 시간의 경계 없이 사라지지 않고 현재에 존재함을 나타낸다. 그러나 재기억의 과정은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한편 극히 위험한 일일 수 있다. 그래서 시이드에게는 감히 기억을 해보고자하는 용기를 갖게 해 줄 신뢰할 수 있는 타인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즉,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다른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공감적 청자의 역할을 누군가가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이드와 스위트 홈에서 노예시절을 함께 지냈던 폴 디의 재회는 의미심장하다.

“시이드, 내가 여기 텐버와 함께, 있으며, 가고 싶은 데는 어디든 가도 좋아. 뛰어내려도 좋아. 내가 붙잡아줄 테니. 추락하기 전에 내가 잡아줄게. 필요하면 아무리 깊이 들어가도 좋아. 내가 네 발목을

27) 이영철, p. 206.

붙들고 있을 테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줄게.
(p. 98)

그리하여 폴 디가 온 다음날, 그녀는 거실에 무릎을 꿇고 앉아 124번지의 황량한 실체를 증거하는 오렌지색 네모 두 조각에 정신을 팔았던 것이다.

그건 다 폴 디 탓이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억눌려 있던 온갖 감정들이 표면으로 부상했다. 만물이 참된 정체를 드러냈다. 단조로움은 생기 없고 무기력하게 보였고, 열기는 뜨겁게 느껴졌다. 창문들에는 갑자기 바깥 풍광이 나타났다. 그리고 정말이지 그는 근사하게 노래할 줄 아는 사내였다. (pp. 90-91)

폴 디는 고통과 상실로 가득 찬 노예시절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시이드는 비록 조각조각 흩어진 기억일지라도 자발적으로 기억을 떠올리고 그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자신과 유사한 경험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신뢰와 그 사람의 상흔을 바라보고 그것을 동정하게 되면서 자신의 상흔과 그것에 빠진 자아를 동정하게 되고 이것은 과거의 깊은 상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²⁸⁾ 폴 디는 시이드의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줄 만큼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 시이드는 그런 폴 디의 존재로 인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정서적인 안정을 느낀다. 그 결과 시이드는 무감각해졌던 색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즉, 색채를 인지한다는 것은 곧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자아를 인식하게 됨을 의미한다. 시이드는 폴 디를 과거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상대라 믿고 그로 인해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의 삶을 살 수 있는 희망을 보게 된다.

폴 디의 몸가짐에는 어딘지 축복받은 데가 있었다. 여자들을 그를 보기만 하면 흐느껴 울고 싶은 기분이 되었다. 가슴이 아프다고, 무릎도 아프다고 하소연을 하고 싶은 마음이 되었다. 강인한 여자들도 현명한 여자들도 너나 할 것 없이 그를 보면 여자끼리만 할 이야기를 줄줄이 털어놓곤 했다. (pp. 65-66)

폴 디의 성격 또한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갖춘 인물이다. 그와 함께 있으면 여자들은 울 수 있었고 울면서 여자들

28) 위소영, p. 16.

끼리만 하는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시이드는 폴 디를 원했다. 그이가 무슨 이야기를 해주건 무엇을 알고 있던 상관없이, 자기 삶에 폴 디가 들어와주기를 원했다. 애초에 공터를 찾아온 건 할리를 추모하기 위해서였는데, 그보다 더 간절한 바람이었다.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신뢰와 재기억, 그래, 폴디가 부엌의 화덕 앞에서 그녀를 끌어안고 얼리주었을 때, 혹시나 싶어 기대했던 그런 신뢰와 추억. 폴 디 그의 무게와 예리한 각, 얼굴에 난 실물 그대로의 수염, 둥글게 굽은 등, 잘 교육받은 손들. 그의 기다리는 눈과 지독한 인간적 힘. 그녀의 마음을 아는 그의 마음.
(p. 155)

시이드는 폴 디에 대한 강한 신뢰감으로 말하기 고통스러운 또 하나의 기억인 아이들을 위한 젓을 빼앗기고 등에 나무가 자라는 것 같은 흉터를 만든 채찍을 맞았던 일을 털어놓게 된다.

“당신이랑 헤어졌을 때, 그 남자들이 들이닥쳐서 내 젓을 빼앗아 갔어. 애초에 그게 목적이었던 거야. 나를 바닥에다 꼼짝달삭 못하게 누르고는 젓을 빼앗아 갔어. 애초에 그게 목적이었던 거야. 가아너 부인한테 그 얘기를 했지. 종양 때문에 말도 못했지만 부인 눈에 눈물이 고이더군. 그 빌어먹을 사내들이 내가 말했다는 걸 알았나봐. 학교선생이 한 놈을 시켜 내 등을 가르게 만들었고, 상처가 아물면서 나무가 났어. 아직도 거기 자라고 있어.”
“당신한테 쇠가죽 채찍을 썼단 말이야?”
“그리고 내 젓을 빼앗아갔어.”
“임신한 당신을 때렸단 말야?”
“그리고 젓을 빼앗아갔다니까?” (p. 65)

폴 디는 이 이야기를 통해 그때 왜 할리가 버터범벅이 된 채 실성하여 헛간에 있었는지를 알게 된다. 시이드 또한 할리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18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되고, 폴 디는 쇠재갈을 물고 있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시이드와 폴 디는 말하기를 통해 서로의 파편화된 기억들로 각자의 기억의 공백을 서서히 메꿔 의미 있는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를 재구성한다. 말하기를 통한 기억의 재구성의 과정은 조각난 자아를 서서히 통합된 자아로 회복시키는 과

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들은 말하기를 통하여 객체의 상태에서 주체의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²⁹⁾

그러나 시이드와 폴 디에게, 딸의 죽음과 알프레드 수용소에서의 경험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말할 수 없는 기억으로써 아직은 침묵 속에만 존재한다. 말하기를 통해 이 끔찍한 과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둘의 관계는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 둘 사이의 이 고통스러운 침묵을 깨뜨리는 것은 정체불명의 빌러비드의 등장이다. 빌러비드는 시이드, 폴 디, 그리고 덴버가 카니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등장한다. 다시 말해, 시이드가 이들 셋의 그림자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이제 고통스런 과거를 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에 대해 잠시나마 생각하는 찰나에 나타난 것이다. 이때 등장한 빌러비드는 이들이 과거를 제대로 기억하여 해결하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려 할 때, 과거를 되살리는 존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빌러비드의 존재와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들이 제시되어 왔다. 하우스(Elizabeth B. House)는 빌러비드를 시이드를 자신의 어머니로 착각한 실제적인 인물로 보고 있고³⁰⁾, 호비츠(Deborah Horvitz)는 빌러비드를 중간항로에서 죽은 모든 여자 노예들 즉, 모리슨이 “6천만 명 그리고 그 이상”이라고 헌사에서 칭찬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다간 흑인 여성 전체를 상징한다고 말한다.³¹⁾ 가장 지배적인 의견은 시이드의 죽은 딸, 124번지에 출몰하던 아기 유령인 덴버의 언니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모리슨은 마샤 달링과의 인터뷰에서 빌러비드를 이중적 존재로 얘기한다.

“그녀는 한편으로 영혼이고 글자 그대로 시이드가 생각하는 그녀의 딸로써, 그녀의 딸의 유령이 환생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소설에서 그녀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또한 그녀는 실제의 노예선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이기도 합니다.”³²⁾

모리슨의 견해를 참조하면 빌러비드는 시이드가 살해했던 딸의 환생일 뿐만 아

29) Bell Hooks, *Talking Back: Thinking Feminist, Thinking Black* (Boston: South End, 1989), p. 12.

30) Elizabeth B. House, “Toni Morrison’s Ghost”: The Beloved Who Is Not Beloved,“ *Studies in American Fiction* 18.1 (1990): 17-26.

31) Horvitz, p. 157.

32) Darling, p. 247.

나라, 제대로 잊혀지기 위하여 기억되어야 하는 흑인 전체의 과거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빌러비드의 내면독백은 그녀의 이중적 정체성을 입증해 준다.

모든 건 이제 지금 언제나 지금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나는 여전히 쭈그리고 앉아 쭈그리고 앉아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어 내 얼굴 위의 남자는 죽었어 그의 얼굴은 내 얼굴이 아냐 입에서는 단내가 나지만 두 눈은 단단히 잠겨 있어

먹는 이도 있지만 그러면 더러워져 나는 먹지 않아 피부가 없는 인간들이 우리에게 오줌을 마시라고 갖다줘 밤이면 아무것도 없거든 내 얼굴 위의 죽은 사람이 보이지 않아 틈새로 햇살이 비쳐 들어오면 단단히 잠긴 그 눈이 보여 난 크지 않아 작은 쥐들은 우리가 잠들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 마구 때리며 쫓으려 하는 이도 있지만 그럴 만한 자리가 없어 마실 게 좀더 있으면 눈물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땀이나 오줌 같은 걸 만들 수가 없어서 피부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기네 오줌을 가져다줘 언젠가는 달콤한 돌맹이를 빨라고 가져다 줬어 우리는 모두 사체를 남겨놓고 저승으로 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내 위의 남자는 결국 해냈지 영원히 죽어버리는 건 힘들어 잠깐 선잠이 들었다가 깨버리곤 하는데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와 있거든 토할 것 같지만 그럴 수도 없어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 남자의 이는 어여쁜 하얀 점들 누군가 떨고 있어 여기서도 느껴져 사체를 남겨놓고 떠나려고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 작은 새가 바르르 떠는 것 같은데 떨 만한 공간도 없으니 그래서 그는 죽을 수가 없는 걸 내 위의 죽은 남자는 치워지고 나는 그의 어여쁜 하얀 점들이 그리워 (pp. 279-80)

구두점도 없이 단편화된 문장들로 이루어진 그녀의 독백은 얼핏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이미지들의 집합체로 보이지만, 중간항로를 건너면서 노예선상에 내던져진 흑인들의 처참한 경험과, 심리적인 혼란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³³⁾

폴 디가 시이드의 기억을 촉진시켰듯이, 빌러비드는 시이드의 기억의 촉매제가 되어 그녀는 다시 과거를 기억하게 된다. 폴 디가 시이드로 하여금 그녀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함으로써 시이드의 이야기의 공백을 채웠다면, 빌러비드는 시이드가 잊었다고 생각했던 것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시이드의 이야기의 공백을 채운다.³⁴⁾ 이것이 이 소설에 빌러비드가 등장하는 의미와 이유이다. 빌러비드가

33) 이승은, pp. 157-59.

34) 김혜경, 『Toni Morrison의 *Beloved* 연구 - 역사의 회복과 정체성 확립의 문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석사학위 논문(2002), p. 28.

대체 어디서 왔는가라는 의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빌러비드를 통해 시이드는 자신이 억압하였던 기억을 말하게 되고 자아를 찾아가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이다.

빌러비드는 시이드에게 까맣게 잊고 있는 다이아몬드 귀걸이에 대해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이드의 재기억을 일깨우기 시작한다.

“다이아몬드들은 어디 있어요?”

빌러비드는 시이드의 얼굴을 살살이 탐색했다.

“다이아몬드? 내가 다이아몬드를 어디다 쓰겠니?”

“귀에 걸지요.”

“그랬으면 좋겠구나. 수정을 갖고 있던 적인 있었는데, 주인마님의 선물이었지.”

“얘기해줘요. 아줌마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해줘요.” (p. 111)

시이드는 빌러비드에게 귀걸이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시이드와 베이비 석스는 암묵적으로 과거란 입 밖에 낼 수 없는 것임에 합의하고 있었으나 귀걸이 이야기를 시작하자 시이드는 본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고 즐기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아마도 빌러비드가 사건 자체와 거리가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고 아니면 빌러비드가 워낙 이야기에 목말라하고 있기 때문일 거라고 시이드는 생각한다.

시이드의 귀걸이는 스위트 홈에서 할리와 결혼할 때 가아너 부인이 시이드가 자신이 바라는 결혼식은 없다는 것을 알고 결혼의 증표로 선물로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딸을 죽이고 감옥에 들어간 후 그 귀걸이를 잊고 있었다.

‘당신 여자, 머리를 한 번도 안 빗어주나?’라는 질문은 시이드를 향한 것이 틀림없었다. 빌러비드는 시이드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으므로 “내 여자? 우리 어머니 말씀이니? 머리를 빗겨준 적이 있대도, 기억이 나질 않아. 들판에서 일하는 모습 몇 번밖에 본 적이 없거든.

... (p. 114)

빌러비드의 질문에 답하면서 시이드는 모기장을 몰래 뜯어 드레스를 만들었던 일, 그 드레스를 입고 할리와 두 손을 꼭 잡고 옥수수 밭으로 신혼여행 갔던 일, 그리고 몇 번 본적 없었던 어머니에 대한 일들을 재기억하게 된다.

그 전까지 시이드는 태어난 장소가 정확히 캐롤라이나(Carolina)인지 루이지애나(Louisiana)인지, 생모가 누군지조차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단지 일하고 있는 많은 여인네들의 뒷모습들 중에 유일하게 밀짚모자가 아닌 형짚 모자를 쓰고 있던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였다는 사실밖에는 기억나는 게 없었다. 시이드가 어머니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억은 어머니의 부재에 관한 것뿐이었다.

시이드는 태어난 장소(캐롤라이나였던가? 아니면 혹시 루이지애나였던가?)에 대해서는 춤과 노래 외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생모가 누군지조차도 전혀 생각나지 않았다. 어린애들을 보는 여덟 살 짜리 아이가 질척거리는 밭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일을 하고 있는 술한 등판들 중에서 하나를 그녀의 어머니라며 손으로 가리켰다. 시이드는 참을성 있게 그 등판이 줄의 끝자리로 가서 일어서기를 기다렸다. 보이는 거라곤 다들 밀짚모자를 쓰고 있는데 형짚으로 된 모자를 쓰고 있다는 것뿐. (pp. 80-81)

시이드는 다른 노예들의 삶처럼 어머니와의 유대관계를 전혀 쌓지 못하고 자라났다. 노예제도에서 흑인 가족의 해체는 흑인에 대한 백인의 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이다. 시이드 역시 어머니의 모유를 먹은 것은 고작 2, 3주 밖에 되지 않았었다. 그것도 백인 아이들이 다 먹은 후에야 먹어야 했고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렇게 어머니의 부재,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하는 모유의 부재로 생긴 시이드의 좌절감은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초도로(Nancy J. Chodorow)는 어릴 적 부모의 지속적인 보살핌이 자식의 자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단계임을 강조한다.

돌봄의 질은 자아의 성장과 유아의 기본적 감성의 자아 이미지(선악과 옳고 그름)를 조절하기도 한다. 압도적인 불안 없이 상호작용이 유지, 공급되고 비교적 일관된 패턴으로 지속되면 베네딕이 말하는 “자신감”과 에릭슨이 말하는 “기본적 신뢰”를 유아가 개발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되돌아가 자아나 정체성의 핵심적인 단초를 구성한다.³⁵⁾

35) Thomas C. Caramagno, *The Flight Of the Mind: Virginia Woolf's Art and Manic-Depressive Illness* (Berkeley: UP of California, 1995), p. 129.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좌절감과 박탈감은 시이드의 뇌리 속에 항상 박혀 있었고 자기 자식들은 그런 좌절감을 느끼며 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 폴디가 “당신 사랑은 너무 짙어서 숨막혀”(229)라고 말할 만큼 — 을 갖고 살아 왔다. 어릴 적 어머니와의 연대 없이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갖지 못한 채로 자라났고, 딸을 살해한 이후로 죄의식마저 안고 살아온 시이드에게 어머니의 기억,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노예선을 타고 같이 대서양을 건넜던 낸(Nan)이라는 여인이 시이드에게 해주었던 말들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어머니가 자신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시이드에게 갈비뼈 바로 위 피부에 둥근 원과 십자가 화인을 보여주었었지만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했던 시이드는 자기도 그 표식을 해 달라고 했다가 뺨을 맞는다. 시이드는 나중에 어머니가 교수형에 처해지고 시체들 더미 속에 속에서 그 표식을 확인 하려 했지만 낸이 강제로 그녀를 데려간다. 그 이후로 시이드는 할리를 만날 때 까지 그 때의 충격으로 말을 더듬는다.

시이드는 어머니의 행동이 자신이 딸을 죽인 것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강한 마음에서 연유되었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또한 그녀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낸의 이야기의 의미를 인식하게 되는데, 그것은 시이드의 어머니가 노예선에서 선원들과 백인들에게 강간을 당하여 여러 명의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들에게는 이름도 지어주지 않고 내다 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두 팔로 껴안아 줄만큼 사랑했던 남자 사이에서 낳은 시이드 만큼은 버리지 않았고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사실이다.

“너만 빼고 아이들을 전부 내던져버렸단다. 선원한테서 얻은 아이 하나는 섬에다가 버리고 왔지. 다른 백인들의 아이들도 다 버려버렸다. 이름도 없이 내다버렸어. 너한테는 어머니가 네 아버지였던 흑인의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 남자의 몸은 두 팔로 껴안아주었지. 다른 남자들은 절대로 두 팔로 껴안지 않았다. 절대. 절대. 너한테 말해두지만. 정말이란다. 꼬마 아가씨 시이드야.” (p. 116)

재기억을 통한 어머니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은 시이드의 자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시이드가 어머니를 기억하고, 이해하며, 잃었던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서서히 자아를 치유한다.³⁶⁾ 그녀는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전혀 모르고 살

36) Andrea O'Reilly, *Toni Morrison and Motherhood: a Politics of the Heart*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4), pp. 40-41.

아왔는데 자신 또한 어머니에게는 정말 소중한 존재였음을 깨닫고 자아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다.

시이드는 빌러비드를 딸처럼 여기게 되었지만, 폴 디는 빌러비드가 뿜어내는 빛나는 안색이 처음부터 영 마음에 들지 않았고 20년 동안 이래저래 만난 모든 흑인들을 통틀어 봐도, 빌러비드는 정말이지 알 수가 없는 존재이다. 또한 빌러비드가 나타난 날은 시이드, 덴버와 정말 한 가족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 제야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새로운 희망을 품은 중요한 날이었다. 그는 빌러비드가 나갔으면 하고 바랐지만, 자기 집도 아닐뿐더러 KKK단이 휘젓고 다니는 상황에서 여자애를 혼자 쫓아낼 수도 없다.

빌러비드의 모든 관심은 시이드에게 쏠려 있다. 그녀에 대한 소유욕과 집착으로 인해 시이드와 폴 디가 다정하게 붙어있는 모습에 분노를 느끼고 그를 경계의 대상으로 삼는다. 결국 빌러비드는 폴 디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조금씩 잠자리를 시이드의 방에서 멀어지게 하며 그를 유혹하고, 폴 디는 끝까지 자신의 의지를 지키지 못하고 만다.

그녀가 그를 옮겼다.

폴 디가 아기 유령을 두들겨패 쫓아냈듯이, 창문들을 깨부수고 잼 단지들이 한데 엉켜 뒹굴며 쿵쾅거리고 소리를 껍껍 질렀던 건 아니었다. 하지만 어쨌든 그녀는 그의 자리를 옮겼고, 걸보기에는 꼭 폴 디가 스스로 자리를 옮기는 것처럼 보였기에 그로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보이지 않게, 누가 봐도 그럴싸하게, 폴 디는 124번지에서 나오고 있었다. (p. 173)

이 일로 인해 폴 디는 자신이 어린 여자애한테 꿈쩍 못하고 박제당하는 남자라는 사실에 심한 수치심을 느낀다. 그러나 자기가 보호해주고 싶은 여자인 시이드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더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제까지 폴 디의 힘은 전부 학교선생이 틀렸다고 믿는 데서 나왔다. 그런데 이제 폴 디는 자신들을 의지가 없는 동물로 여겼던 학교선생의 생각이 맞는 것은 아니었는지 의문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그는 혼자 힘으로 상황을 타파할 만큼 남자답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진다.

이런 혼란스런 상황에서 폴 디는 스탬프 페이드가 보여준 과거 영아살해사건

기사를 보게 되고 자신의 힘든 상황과 맞물려 그 사건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시이드를 동물로 규정해 버린다.

“당신이 한 것은 잘못된 거야, 시이드.”

“그럼 그리로 돌아가야만 했다는 거야? 내 아기들을 도로 거기로 데리고 가야 했어?”

“길이 있었을 거야, 뭔가 다른 길이.”

“어떤 길?”

“당신은 두 발 달린 사람이잖아, 시이드. 네 발 달린 짐승이 아니잖아.”

그는 말해버렸고, 바로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까마득한 숲이 들어섰다. 길도 없고 적막한 숲이. (pp. 229-30)

폴 디는 이제껏 백인들에게 짐승처럼 취급당하며 느꼈던 수치를 그녀의 수치로 전가시킨 것이다. 그래서 그는 시이드의 입장을 헤아려보려는 노력 없이 백인의 시각에서 ‘짐승’이라는 말을 해버리고 만 것이다.

시이드와의 갈등으로 124번지를 나와 교회 지하실에서 지내면서 폴 디는 자꾸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깊은 생각에 잠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과거의 삶을 재기억하며 자신에 대한 답을 서서히 찾기 시작한다. 수년 동안 폴 디는 가아너가 남자로 길러낸 노예들을 학교선생이 망쳐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그는 가아너가 있을 당시 그들은 온실 속에서 특별하다고 생각했었지만 학생선생이 오기 전과 후가 그리 다르지 않음을, 기가 막힌 거짓말에 에워싸여 격리되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지만 자신들은 몸값이 매겨진 노예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사무엘스(Wilfred Samuels)와 허드슨-웬스(Clenora Hudson-Weems)는 이 순간의 폴 디의 인식은 폴 디가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백인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라고 말한다.³⁷⁾

그는 가아너가 그들을 남자라고 부르고 공표했고 자신도 남자다운 일을 많이 해오며 살았다고 자부했지만 그게 과연 남성성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된다. 가아너의 허락 하에서만 그들은 남자가 될 수 있었고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폴 디는 노예로서의 삶을 통해 자신의 의지라는 것을 잃고 살아왔음을

37) Wilfred Samuels and Clenora Hudson-Weems, *Toni Morrison* (Boston: Twayne, 1990), p. 124.

깨닫게 된다.

“그래서 도망나온 거요? 내가 시이드에 대해서 해준 얘기 때문이 아니라?”

전율이 폴 디의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뺏속가지 시린, 발작 같은 경련에 무릎이 짝 조여왔다. . . .아니면 붉고 붉은 심장을 잃어버린 탓인지 알 수가 없었다. (p. 306)

결국 124번지를 떠난 것도 딸을 죽인 시이드 때문이 아니라 의지를 망각하고 빌리비드의 봉제인형이 되어버린 자기 자신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스탬프 페이드는 자신이 폴 디에게 그 신문기사를 보여준 바로 그날 그가 124번지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로 미안한 마음으로 그를 찾아가 그 때의 상황을 재기억하며 시이드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준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소, 폴 디.”

“영감님이 어디 있었다고요?”

“그때 그 마당에. 그 짓을 저질렀을 때.”

“주디가요?”

“시이드”

“맴소사.”

“충각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소이다.”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영감님이 어떻게 아세요?”

“시이드는 미친 게 아뇨. 애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거야. 그래서 해로운 인간들보다 미리 더 심한 상처를 끼치려 했던 거지.” (p. 305)

시이드가 딸을 죽인 것은 흑인 노예로서 겪어야 했던 고통 때문임을 스탬프 페이드는 공감하며 그것은 시이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흑인 모두의 문제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내 바쉬티(Vashti)를 백인주인에게 빼앗기고 난 뒤 ‘조슈아’(Joshua)라는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아내를 넘겨주었다는 것은 그 누구한테도 진 빛이 없다는 의미로 ‘스탬프 페이드’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살아왔던 고통스런 얘기를 폴 디에게 하게 된다. 이것은 폴 디가 시이드와 자신의 관계를 개인적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 흑인 노예로서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준다.

“스탬프 영감님, 말 좀 해주세요.” 폴 디의 눈이 흐려지면 번들거렸다. “이거 하나만 말해주세요. 감동이는 얼마나 많이 참아야 하나요? 말해주세요. 얼마나?”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아야지.” 스탬프 페이드가 말했다. “참을 수 있을 만큼.”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p. 306)

폴 디는 이제까지 참아왔던 흑인 노예의 울분을 토해내며 자신들은 얼마나 더 참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묻는다. 노예해방 이전과 별반 다른없는 현실 속에서 흑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반문하는 것이다. “자유의 몸이 되는 것도 힘들었지만, 자유의 몸이 된 자기 자신을 당당히 제 것이라 주장하게 되는 건 또 다른 이야기”(151)이기 때문이다.

빌러비드의 등장은 이제껏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 외롭게 고립된 생활을 해 온 덴버에게도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온다. 빌러비드가 처음 124번지에 와서 자기 이름의 철자를 또박또박 불러주던 순간 덴버는 자신의 언니임을 확신하고 자신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빌러비드에게 쏟는다. 빌러비드는 아기 유령이었을 때부터 자신의 유일한 친구였고, 시이드가 언니의 목을 잘랐을 때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언니의 피를 함께 맛보았었다는 사실로 인해 덴버에게 빌러비드는 특별할 수밖에 없다.

... 그리고 난 언니를 사랑해요. 사랑해요. 정말이에요. 언니는 나와 놀아주고, 필요할 때 언제나 곁에 있어주었어요. 언니는 내 거예요. 빌러비드. 언니는 내 거예요. (p. 278)

빌러비드가 돌아온 주된 이유가 자기가 아니라 시이드 때문이라는 사실 때문에 속이 상하기는 했지만 빌러비드가 온 날부터 덴버가 회양목으로 뒤덮인 비밀의 방에 가지 않을 만큼 빌러비드의 존재는 그녀에게 소중했다. 빌러비드를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 빌러비드가 좋아하는 단 것, 원하는 이야기 등을 끊임없이 제공해준다.

축제가 끝나고 돌아오던 그날, 빌러비드가 그 집 나뭇등걸 위에 앉아 있던 그날부터, 덴버는 회양목으로 뒤덮인 방에 발길을 끊었다.

그 장소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든 여기의 언니한테서 넘치도록 받을 수 있었다. 뛰는 가슴, 꿈같은 몽롱함, 사회, 위험, 아름다움. 그녀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두 번인가 침을 꿀꺽 삼키고, 평생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이야기의 실로 빌러비드를 낚을 그물을 만들 준비를 했다. (pp. 130-31)

특히, 덴버는 이제껏 듣기만 했던 얘기인, 백인 에이미 덴버의 도움으로 배에서 자신이 태어났던 과정을 자신의 입으로 직접 얘기하면서 처음으로 어머니의 처했던 상황과 어려움을 느끼고 이해하게 된다. 그녀는 열아홉 살짜리 노예 소녀가 겪었을 험난한 역경과 고통을 서서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덴버에게 이야기하기는 그녀의 끊임없는 탄생의 과정이다.³⁸⁾ 이야기하기를 통해 덴버는 자아의 위치와 의미를 찾아가고 정신적으로 성장한다.

... 덴버는 단순히 듣기만 하던 이야기의 참뜻을, 이야기를 하는 입장이 되면서 이제야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야기 속의 열아홉 살짜리 노예 소녀-자기보다 한 살 많은-는 머나먼 곳에 있는 자기 아이들을 찾아가려고 캄캄한 숲 속을 뚫고 걷고 있었다.

기진맥진한 그녀는 어찌면 두려웠을 터였고, 어찌면 길까지 잃었을 터이다. 무엇보다 그녀는 훌훌 단신이었고, 뱃속에는 신경써야 할 아이를 하나 더 배고 있었다. 뒤에서는 어찌면 개들이, 아마도 총들이 그리고 틀림없이 이끼 낀 이빨들이 추적해오고 있을 터였다. 밤과 같은 색깔의 그녀는 밤에는 별로 무서움을 타지 않았지만, 낮에는 무슨 소리든지 다 총소리나 추적자의 숨죽인 발걸음 소리로만 들렸다.

덴버는 이제 그 이야기를 눈앞에 선히 떠올려보면서 절절하게 느끼고 있었다-빌러비드를 통해서 (p. 132)

덴버는 빌러비드와 함께 시이드의 재기억 속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은 경험해보지 못한 노예제의 참상을 절실히 느끼며 자신의 어머니를 노예제도의 피해자로 여기게 되고 자신의 언니를 죽인 것은 진정한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깨닫게 된다. 어머니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떨치게 되고 서서히 사건의 본질을 보며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리슨은 시이드와 스위트 홈 농장에서 노예로서

38) Trudier Harris, *Fiction and Folklore: The Novels of Toni Morrison* (Knoxville: UP of Tennessee, 1991), p. 167.

함께 생활했던 동료인 폴 디를 등장시켜 시이드가 과거에 대한 침묵을 깨고 말할 수 있는 주체가 되도록 한다. 시이드는 폴 디와의 애정 어린 대화를 통해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고 과거를 새롭게 정립하게 된다. 또한, 모리슨은 흑인 노예들의 침묵을 깨뜨리며 이들의 자아회복을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빌러비드를 등장시킨다. 즉, 모리슨은 빌러비드를 통하여 시이드가 과거라는 틀 속에 자신을 가두어 버린 지난날의 모습들을 재기억하고 이야기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폴 디는 빌러비드로 인하여 자신이 노예로 살아왔던 과거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흑인 노예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결국, 빌러비드의 등장으로 시이드와 폴 디는 아픈 과거를 재기억하고 제대로 잊혀질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한다. 텐버 또한 빌러비드에게 이야기하기를 통해 그리고 시이드의 목소리로 듣는 그녀의 과거 이야기를 통해, 어머니를 진심으로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억압되었던 자기 자신을 놓아주고 새로운 자아를 형성할 마음이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한다.

IV. 자아의 회복

개인의 자아 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이다. 즉, 인간의 자아란 타인과의 관계, 즉, 최초로는 어머니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한 개인의 환경을 형성하는 모든 주변 사람들, 즉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³⁹⁾ 모리슨 역시 “자아와 과거의 이해를 위해 항상 공동체를 부각시킨다.”⁴⁰⁾ 즉, 그녀는 자아의 회복은 한 개인의 힘만으로는 어렵고 공동체와의 결속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희망의 딸 덴버가 세상으로 나아가 124번지의 고립의 문을 열게 하고 자아를 확립하는 것과, 덴버의 노력, 공동체의 도움과 폴 디의 사랑으로 시이드가 서서히 자아를 회복해 가는 과정 모두 공동체와의 결속을 통해 이루어진다.

폴 디가 124번지를 떠난 뒤 시이드, 덴버, 빌러비드는 스케이트를 타러 나가 웃고 웃으며 서로의 결속을 다진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쉬며 빌러비드가 콧노래를 부르는 순간 시이드는 빌러비드가 처음 온 날부터 현재까지의 일들을 떠올리며 일련의 조각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한 느낌을 받는다. 빌러비드가 자신의 딸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딸이 돌아온 것에 대해 시이드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빌러비드를 위해 해 줄 일들을 생각하며 행복감에 빠진다.

이젠 나도 색깔들을 찾아나서야겠어요. 우리에게 찾아올 봄이 얼마나 근사할까요! 그애가 볼 수 있게 당근도 심고, 순무도 심을 거예요. (p. 268)

그렇게 한 달 동안 세 모녀는 옷을 바꿔 입기도 하고, 팔짱을 끼고 걷고, 빌러비드의 머리를 땀아주고, 그림자놀이를 하며 이제껏 누려보지 못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점차 시이드와 빌러비드는 유희에서 덴버를 완전히 따돌려버리고 전에는 덴버에게 불러주던 노래를 이제는 빌러비드에게만 불러준다. 덴버는 흑시

39) 이물순, 「토니 모리슨의 *빌러비드*에 나타난 가족과 공동체」, 『현대영미어문학』 19.3 (2001): 213.

40) Ashraf H. A. Rushdy, “Rememory”: Primal Scenes and Construction in Toni Morrison’s Novels.” *Contemporary Literature* 31.3 (1990): 304.

나 어머니가 다시 빌러비드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이드를 계속 지켜 보지만 더 위험한 것은 시이드가 아니라 빌러비드라는 것을 알게 된다. 빌러비드는 점점 과격해져 물건을 던지고, 식탁의 접시를 모조리 떨어뜨리고, 마루에 소금을 쏟고, 유리창을 깬다. 시이드를 계속하여 힐난하며 원하는 건 무조건 다 가진다. 결국 이제 덴버의 일은 어머니로부터 빌러비드를 보호하는 일이 아니라 빌러비드로부터 어머니를 보호해야 하는 일이 된다.

시이드는 어느 누구에게 말할 수 없었던, 빌러비드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바로 당사자인 빌러비드에게 얘기한다. 이것을 통해 시이드는 자신의 죄의식과 상처를 표출하여 회복할 기회를 갖게 되었지만 빌러비드와의 관계는 시이드를 더욱 더 과거속으로 가두고 만다. 미안함 때문에 시이드는 빌러비드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었고 그럴수록 “소유욕이 강한 독재자”⁴¹⁾처럼 빌러비드의 요구는 점점 더 강해진다. 자신을 혼자 두고 떠난 것에 대해 시이드를 비난하면 시이드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믿게 하기 위해 이야기를 하고 또 했지만 빌러비드는 어머니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빌러비드는 엄마가 자기를 두고 떠났다고 비난했다. 자기한테 친절하게 굴지 않고, 웃어주지 않았다고 힐난했다. 그들은 똑같다고, 똑같은 얼굴을 가졌다고, 그런데 어떻게 자기를 떠날 수가 있었느냐고 책망했다. 그러면 시이드는 울면서, 절대 떠나지 않았다고, 떠날 생각이 아니었다고-아이들을 빼내야만 했다고, 어디 멀리 데려가야만 했다고, 항상 젓이 나왔고 묘석을 새길 돈이 있었지만 모두를 먹이기엔 턱없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언제나 다 같이 저승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빌러비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p. 311)

빌러비드가 어머니에게 지나친 사랑과 애정을 요구하는 것은 이제껏 그런 보살핌을 받지 못한 데서 오는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심리이다. 시이드 역시도 빌러비드에게 사랑이 필요함을 알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그녀에게만 쏟는다. 그러나 딸에게 미처 못다 해 준 사랑과 어머니의 역할을 다하려는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빌러비드의 끝없는 요구에 시이드의 의지는 완전히 무너지고 자아

41) Horvitz, p. 160.

를 상실해 버린다. 그녀는 어린 딸을 살해하던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자기 자신과 모성을 분리하지 못한 채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시이드는 자신을 주체로서가 아니라 생산하고 양육해야 하는 모유를 가진 모체로서만 인식하는 있는 것이다.⁴²⁾ 그녀는 자신이 그 톱니를 작은 턱 아래서 끌어당기기 위해 얼마나 독한 마음을 먹어야 했는지 빌러비드에게 그 이유를 이해시키기도 전에 빌러비드가 떠나버릴까 봐 오직 그 두려움만 생각하고 더 이상은 생각할 여유조차 없다. 시이드는 누가 누구인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빌러비드에게 밀착하였고 시이드는 점점 침몰되어간다.

시이드 위로 허리를 굽히고 있는 빌러비드는 어머니처럼 보였고, 시이드는 이가 막 나는 아기 같았다. 빌러비드가 엄마를 찾지 않을 때, 시이드는 구석 의자에 앉아 아무 데도 다니지 않았기 때문이다. 빌러비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이드는 점점 작아졌다. 빌러비드의 눈이 밝아질수록, 결코 다를 데를 보는 일 없던 시이드의 눈은 불면증 환자의 초점 없는 구멍이 되어갔다. 시이드는 더 이상 머리를 빗지도 않고 얼굴에 물을 끼얹어 세수를 하지도 않았다. 의자에 앉아 야단맞은 아이처럼 입술만 빨고 있었고, 그동안 빌러비드는 엄마의 생명을 갉아먹고 갈취했으며 그로 인해 덩치가 부풀어오르고 키도 커졌다. 그리고 나이 든 여자는 중얼거리는 소리조차 없이 순순히 응했다. (p. 321)

빌러비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작아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텐버는 자신이 이제 “단힌 세계”⁴³⁾인 124번지 마당을 나가 세상으로 발을 내딛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함을 느낀다.

텐버는 어머니가 자식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계속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서 자신은 겪어 보지 않았던 노예제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어머니가 언니를 죽일 수밖에 없었음을 자각한다. 그녀는 어머니에 대한 공포감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라도 빌러비드에게 종속되지 말고 자신을 지켜 어머니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느끼고 있다. 이것은 그녀에게 스스로의 의지를 지키고 독립된 개체로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정체성

42) Jean Wyatt, “Giving Body to the Word: The Maternal Symbolic in Toni Morrison’s *Beloved*.” PMLA 108 (1993): 474-88.

43) 김길수, 「차이의 수용과 공존의 구현: 토니 모리슨의 빌러비드」, 『호손과 미국소설 연구』 12.1 (2005): 187.

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녀가 백인 사회에 대한 선입견으로 선뜻 집을 나가기가 무서워 현관 앞에서 머뭇거리릴 때, 용기를 주는 것은 돌아가신 할머니 베이비 석스의 음성이다.

. . . 덴버는, 햇살을 받으며 현관 앞에 서 있을 뿐 떠날 수가 없었다. 목구멍이 간질거렸고 심장이 발길질을 했다. 그런데 그때 베이비 석스가 웃었다. 세상에 다시없는 맑은 웃음소리였다.

“네 말은, 내가 캐롤라이나 얘기를 하나도 안 해줬다는 거냐? 아빠 이야기도? 내가 어찌다 절름거리며 걷게 되었는지, 네 어머니 등짝은 물론이고 만신창이가 된 발 이야기도 전혀 기억 못하니? 너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줬단 말이나? 그래서 계단을 못 내려가고 그러고 서 있는 게야? 이런, 하나님 맘소사.”

“하지만 백인들을 막을 길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없지.”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알아야지. 그리고 마당 밖으로 나가야지. 어서 가렴.” (p. 314)

할머니로부터 용기를 얻은 덴버는 마당 밖의 세상으로 나가 124번지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다. 덴버가 124번지 밖으로 나가는 순간은 그녀가 사회와 통합된 존재가 되기 시작하고 독립과 자발성을 찾기 시작한 순간이다.⁴⁴⁾ 이웃들은 덴버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며 진심어린 호의를 베풀고 덴버와 소통하기 시작한다. 결정적으로 넬슨 로드가 “네 몸 검사 잘해, 덴버 (323)”라고 얘기했을 때, 덴버는 “네 몸”이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그녀의 마음은 활짝 열리게 된다. 덴버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덴버는 시이드를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로 갈 수 있도록 하는 희망의 딸이 된다.⁴⁵⁾

덴버를 통해 시이드의 근황이 이웃들에게 알려지자 이제 그들의 관심은 시이드를 구출해야 하는 일로 옮겨간다. 그들은 시이드의 아픔을 이제 그녀만의 일이 아니라 흑인 전체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그녀의 죄와 오만은 참을 수 없지만 과거가 현재를 침범한 일은 참을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엘라

44) Linden Peach, *Toni Morrison: Contemporary Critical Essays* (London: Macmillan, 1998), p. 112.

45) Ashraf H. A. Rushdy, “Daughters Signifyin(g) History: The Example of Toni Morrison’s *Beloved*,” *American Literature* 64.3 (1992): 583.

(Ella)를 중심으로 공동체는 힘을 합치게 되어 일행 서른 명은 124번지로 향한다. 엘라는 노예시절 백인주인과 그 아들에게 성적착취를 당하고, 그 상황에서 낳게 된 아이에게 모유를 주지 않아 아이를 죽게 만들었던 시이드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엘라는 시이드를 어느 정도 이해는 하였지만 감옥에서 나온 후 이웃들과의 교류를 끊은 채 사는 시이드의 오만한 태도에 그녀에 대한 마음을 닫고 살아왔다.

엘라를 필두로 124번지에 도착한 서른 명의 흑인 여성들은 베이비 석스와 함께했던 과거를 대면하게 된다.

일행 30명이 모두 모여 124번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처음으로 본 것은 층계에 앉아 있는 텐버가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이었다. 더 젊고 더 강인한, 심지어 잠들어 잔디에 누워 있는 어린 소녀의 모습을 한 자신들. 메기를 튀기는 냄비에서는 기름이 튀고 있었고, 그들 눈앞에 보이는 자신들은 독일 감자 샐러드를 접시에다 덜고 있었다. 자줏빛 시럽이 푹푹 배어나오는 과일 파이에 이가 물들었다. 그들은 현관 앞 평상에 앉았고, 셋강까지 달려갔고, 남자들을 희롱하고 아이들을 엉덩이에 매달아 업고 있었고, 아직 자신들이 아이들인 경우에는 말을 태워주며 작은 손을 잡아주던 남자 어른들의 발등 위에 걸터앉았다. 베이비 석스는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리며 그들 사이를 폴짝폴짝 뛰어다니며, 더 많이 놀고 더 많이 먹도 더 많이 즐기라며 재촉을 했다. 이제는 돌아가신 어머니들이 입으로 부는 하프 소리에 맞춰 어깨를 들썩였다. 그들이 몸을 기대거나 기어오르던 울타리는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 그들이 있었다. 어리고 행복하게 베이비 석스의 마당에서 놀면서, 다음날 떠오른 시기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던 그들의 모습이. (p. 330)

재기억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그 때 베이비 석스의 도움으로 자신들이 화합되었던 모습들을 다시 공유하면서 그때처럼 흑인으로서의 자신들의 상처를 그들 스스로 보듬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베이비 석스의 노고를 뒤로 한 채 124번지를 경원시했던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한다. 이제 그들은 시이드를 위해 과거의 악령을 쫓아내기 위한 기도를 하고 그 기도는 큰 외침의 소리가 된다. 이 소리는 흑인들의 원형적인 모계전통의 유산이 담긴 소리로 “어머니의 잃어버린 소리”, 즉 시이드의 어머니가 사용했던 아프리카 언어와 연결된

다.46) 자신들의 언어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화합의 소리는 시이드를 세례 받은 사람처럼 떨게 하는데 이것은 과거의 늪에서 구원받게 됨을 의미한다.

이때 124번지의 집주인인 보드윈이 124번지로 마차를 몰고 다가온다. 시이드는 18년 전 자신들을 잡으러 왔던 학교선생과 마찬가지로 보드윈을 자신들을 잡으러 온 백인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이제 시이드는 빌러비드의 손을 놓고 얼음송곳을 든 채 백인에게 돌진한다.

그가 시이드의 마당에 오고 있다, 시이드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가러 오고 있다. 그녀 귓전에 날갯짓 소리가 들린다. 작은 별새들이 머릿수선 속으로 작은 바늘들을 찔러넣고 날개를 파닥거린다. 그때 시이드가 생각이란 걸 했다면, 그건 ‘안 돼’였다. 안 돼 안 돼. 안돼 안돼안돼. 그녀는 쏜살같이 달려간다. 얼음 송곳은 그녀의 손에 들려 있는 게 아니라 그녀의 손 자체가 되었다.

현관문 앞에 홀로 서서, 빌러비드는 미소를 짓고 있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잡고 있던 손은 사라지고 손에는 아무것도 없다. 시이드는 그녀를 두고 멀리 달려가고 있고, 도망치고 있고, 그녀는 시이드가 붙잡고 있던 손의 텅 빈 공허를 절감한다. 이제 그녀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 속으로 달려가 그들의 일원이 되고 빌러비드를 떠나려 한다. (p. 334)

보드윈을 향해 손에 무기를 들고 돌진하는 시이드의 행동은 자식을 자신의 자아라고 여기고 죽였던 과거의 모습이 아니다. 과거를 재기억하는 과정에서 시이드는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여 같은 상황이 연출되었을 때 다른 행동을 취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차이나는 반복”이라고 할 수 있다.47) 시이드는 빌러비드를 공격하는 대신 노예제의 근원인 백인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것은 시이드가 모성과 자아를 분리하여 각각을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시이드의 변화된 모습을 지켜본 빌러비드는 사라지게 되고 폴 디가 다시 찾아 왔을 때 “그 애가 날 떠났어(345)”라고 담담히 얘기할 수 있게 된다.

폴 디는 교회지하실에서 지내면서 자기 자신, 가족, 스위트 홈에서의 생활을

46) Missy Dehn Kubitschek, *Claiming the Heritage: African-American Women Novelists and History* (Jackson: UP of Mississippi, 1991): 174.

47) 서길완, 「외상적 과거 되받아치기」, 『비평과 이론』 15 (2010): 87.

뒤돌아보며 자신자신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통해 자신은 외적인 남성다움이 라는 틀에 갇혀 자아를 잃고 살아왔음을 깨달는다.

오직 이 여자 시이드만이, 그렇게 그가 남성다움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사연을 그녀의 사연 옆에 나란히 놓고 싶었다.

“시이드. 당신하고 나, 우리한테는 누구보다 어제가 많아. 이제 어떤 식이로든 내일이 필요해.” (p. 346)

이제 폴 디는 자신의 비참했던 과거를 모두 인정해주고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던 시이드와 미래를 함께하고 싶어 한다. 그는 식소가 자신의 연인인 30마일의 여인을 조각난 자신을 한데 모아 제자리를 찾아 주는 마음의 친구라고 했었던 말을 떠올리며 자신에게 그런 존재는 오직 시이드임을 확신한다.

그는 빌러비드가 사라지고 난 뒤 몸져 누워있는 시이드에게로 돌아와 재생을 나타내 듯 그녀의 몸 구석구석을 목욕시켜 준다.

“괜찮지, 시이드? 내가 물을 좀 데워도 되겠지?”

“그리고 나서 내 발을 세어보게?”

그는 더 가까이 다가선다.

“네 발을 씻어주려고.”

시이드는 눈을 감고 입술을 꼭 다물어 악문다. 그녀는 생각한다.

아니, 창가의 이 좁은 자리가 내가 원하는 곳이야. 여기서 설거야.

이제 씻을 것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어. 그가 씻기는 법을 행어 안다고 한들, 씻을 만한 게 어디 하나 남아 있어야지. 부분부분 씻겨줄 건가? 처음에는 얼굴을, 다음에 손을, 허벅지를, 발을, 등을 차례로? 지쳐버린 그녀의 젖가슴을 마지막으로 씻겨줄 셈인가? 행어 그가 부분부분 씻겨준다 한들, 사지가 갈래갈래 찢겨지지 않고 온전히 견뎌낼 것인가? 그녀는 폴 디를 바라보는 게 위험하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눈을 뜬다. 그를 바라본다. 피치스톤 같은 피부,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두 눈 사이에 잡히는 주름. 그리고 깨닫는다-폴 디가 내면에 지니고 있는 것, 어느 집에든 걸어 들어가서 여자들을 울릴 수 있는 그 축복을. 그와 함께 있으면 여자들은 울 수가 있었으니까. 울면서 여자들끼리만 하는 이야기를 털어 놓았다. (p. 345)

시이드의 신체를 부분부분 목욕시키는 것은 상징적으로 그녀가 조각난 자아를

결합시켜 온전한 자아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시이드는 폴 디의 진심 어린 사랑을 느끼며 이제 과거를 나타내는 빌러비드와 완전히 분리된 채 폴 디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폴 디는 이제껏 그들이 잃고 살았던 자기 자신의 문제, 소중한 시이드의 존재의 가치를 그녀에게 일깨운다. 이것은 “폴 디가 그녀와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그녀의 현재 자아에 자신감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⁴⁸⁾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그녀의 손을 잡는다. 다른 손으로는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진다.

“당신, 당신이 제일 귀해. 시이드, 당신이.”

그의 든든한 손가락이 그녀의 손을 잡고 놓지 않는다.

“내가? 내가?” (p. 346)

“내가? 내가?”라는 시이드의 말은 자신의 소중함을 느끼고 진정한 주체로서 자아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준다.⁴⁹⁾ 이렇게 그들은 이제 두 손을 꼭 잡은 채 주체적인 자아로서 당당히 살아갈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삶을 살 수 없었던 시이드는 덴버, 공동체, 폴디의 사랑으로 자아를 회복한다. 덴버는 빌러비드로부터 시이드를 구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흑인 공동체에 첫 발을 내딛고 시이드와 공동체를 연결시킨다. 즉, 덴버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인해 시이드와 이웃들은 18년 전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웃들은 덴버를 통해 시이드의 상황을 알게 되고 이제껏 발길을 끊었던 124번지를 찾아가 시이드를 위해 기도를 해줌으로써 시이드를 옹호하고 있던 빌러비드를 축출한다. 흑인 공동체가 과거의 상징인 빌러비드를 쫓아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빌러비드로 인한 시이드의 고통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시이드가 빌러비드에게 삶을 지배당하는 모습은 여전히 노예제의 상흔으로 고통받고 있는 흑인전체의 모습인 것이다. 결정적으로 시이드가 자아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해주는 것은 폴 디이다. 그는 진심어린 사랑으로 시이드에게 그녀의 존재 가치를 일깨우고 주체적인 자아를 인식하도록 한다. 폴 디는 기존 가부장적인 성격의 남성

48) Kubitschek, p. 129.

49) 권혁미, 「빌러비드에서의 진정한 정체성의 추구」, 『남서울대학교 논문집』 10 (2004): 167.

으로서가 아니라 시이드와 동등하고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으며 시이드가 잃어버린 자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끄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시이드는 아픈 과거의 기억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된다. 과거를 극복한 시이드의 희망적인 모습은 한 개인의 자아 회복을 넘어서 흑인 전체의 재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인생의 주체가 되기 시작한 시이드, 폴 디, 덴버는 육체적인 자유에서 이제 정신적인 자유를 찾고 자신의 정체성을 서서히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자아를 찾는다는 것은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아니다. 이들이 앞으로 공동체 안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다져 갈 때 서서히 이루어질 것이다. 모리슨이 결국 추구하는 흑인들의 모습 또한 자아를 온전히 회복한 주체적 태도일 것이다.

V. 결 론

모리슨이 『빌러비드』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백인들이 흑인 노예들에게 가했던 가혹함과 흑인들이 겪었던 신체적인 고통보다는 노예해방이 이루어진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흑인들의 정신적인 트라우마이다. 노예해방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 폐해는 여전히 미국 사회 곳곳에 남아있고 흑인들의 현재의 삶을 왜곡시키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흑인들을 포함한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어두웠던 과거를 기억하기를 꺼려한다. 앤젤로(Bonnie Angelo)와의 인터뷰에서 모리슨은 이것을 “국가적 기억 상실증”⁵⁰⁾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의미에서 『빌러비드』는 미국 역사의 가장 큰 치부인 노예제도라는 국가적 기억상실증을 다루는 작품이다. 결국 이 소설의 제목이면서 시이드가 살해하였던 딸이 육화되어 돌아온 인물의 이름인 빌러비드는 노예제도 하에서 사랑받지 못한 채 죽어갔던 모든 흑인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소설에서 모리슨은 자기 자식만큼은 노예제도라는 사회적 악습의 희생자가 되기를 원치 않아 자신의 딸을 살해하고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주인공 시이드가 어떻게 진정한 자아를 회복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시이드는 모리슨이 이 소설의 모티브로 삼았던 실제 사건의 주인공인 마가렛 가아너(Margaret Garner, 1834-1858)의 자식에 대한 강한 사랑과 노예제의 고통이 투영된 인물로 아픈 과거의 기억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 현재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한다. 과거의 기억들을 억압할수록 과거는 더욱 생생하게 살아나 그녀의 현재의 삶을 지배하고 구속한다.

모리슨은 흑인들의 상황을 대변하는 시이드가 겪는 상황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말하기 어려운 과거일지라도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과정이 꼭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재기억의 과정은 필수적인 것임을 강조한다. 단순히 ‘기억’이라는 말로 하기에는 다시 기억하기에 너무 힘들고 아픈 기억이기 때문에 ‘재기억’이라는 특정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재기억의

50) Bonnie Angelo, “The Pain of Being Black: An Interview with Toni Morrison,” *Conversation with Toni Morrison*, ed. Danille Taylor-Guthrie (Jackson: UP of Mississippi, 1994), p. 257.

과정은 흑인들의 억압과 상처의 고리를 풀어가는 해결책이다.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과거는 잊으려는 노력으로 잊혀지는 것이 아니다. 과거로 온전히 남아있지 못하는 과거는 끊임없이 빌러비드가 육화되어 나타난 것처럼 현실로 출몰한다. 과거로 제대로 묻히기 위해서는 과거를 기억해주고 이야기해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하여 재기억은 과거의 진실이 되어 과거로 남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리슨은 중심인물들이 끊임없이 재기억을 통해 과거를 대면하게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만든다. 현실의 삶을 얼룩지게 만드는 기억의 근원을 캐고 들어가 다시 바라보고 재해석하게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빌러비드이다. 그녀는 시이드와 폴 디가 과거를 제대로 정립하지 않은 채 미래를 꿈꾸는 순간 나타나 억압된 과거를 이끌어내고 과거를 대면하게 하는 기억의 촉진제의 역할을 한다.

빌러비드는 시이드에게는 집요한 질문의 연속으로 과거를 말하게 한다.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시이드는 잊고 있었던 어머니에 대한 기억들을 되살려내고 자신도 어머니에게 소중한 딸이었음을 재인식하게 된다. 폴 디에게는 그의 의지를 통제할 수 없도록 만들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게 한다. 그 과정에서 폴 디는 수치스러웠던 과거의 자신의 모습 또한 수용하게 되고 시이드의 아픔도 결국은 자신의 상처와 같은 맥락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는다. 결국, 그는 시이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노예제도를 경험하지 않은 덴버는 빌러비드와의 대화를 통해 노예로서의 어머니의 고통을 실감하게 되고 시이드가 빌러비드에게 반복하여 해주는 얘기를 통해 어머니가 딸을 살해하였던 것이 강한 모성에서 나온 행동이었음을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재기억의 과정에서 등장인물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삶의 새로운 의미를 알게 되고,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 모두가 이어져 있음을 인식하면서 공감의 정서를 공유하게 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공감은 새로운 자아를 회복하는 기틀이 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이드와 빌러비드의 집착적인 관계는 시이드의 의지를 무너뜨려 자아를 망각하게 하고 과거 속으로 더 빠져들도록 한다. 이때 덴버는 미래를 여는 희망의 딸로서, 현실을 직시하고 공동체로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공동체의 참여는 시이드에게 과거와 현재사이의 균형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 즉, 모리슨은 공동체와의 결속을 통해 개인의 고통이 치유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결국 자아의 확립은 사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소설의 결말에서 “이건 다른 사람한테 퍼뜨릴 이야기가 아니었다.”(It was not a story to pass on.)(347-348)라는 말을 세 번 반복함으로써 모리슨은 이 이야기가 기억되어지고 이야기되어야 할 역사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빌러비드』를 통하여 흑인들이 과거 조상들의 삶과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의 근원에 대한 참된 앎을 통하여 흑인으로서의 건강한 자아를 갖고 살기를 바라는 작가의 소명의식의 표출인 것이다.

Bibliography

1. Text:

Morrison, Toni. *Beloved*. 1987. Annotated by Ja-Mo Kang. Seoul: Shinasa, 2011.

김선형. 『빌러비드』. 서울: 들녘, 2011.

2. References:

권혁미. 「빌러비드에서의 진정한 정체성의 추구」. 『남서울대학교 논문집』 10 (2004): 149-69

김길수. 「차이의 수용과 공존의 구현: 토니 모리슨의 빌러비드」. 『호손과 미국 소설 연구』 12.1 (2005): 163-95.

김미아. 『토니 모리슨의 사색』. 서울: 동인, 2012.

김진숙. 「Toni Morrison의 *Beloved* 연구: 재기억의 의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김혜경. 「Toni Morrison의 *Beloved* 연구-역사의 회복과 정체성 확립의 문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2.

김혜진, 「재기억의 정치학 - 미국 소수 인종 소설 속에 나타난 트라우마적 경험과 정체성 회복」,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6.

박순정. 「소유적 관계가 자아형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빌러비드를 중심으로」. 『영어영문학연구』 34 (2008): 21-39.

서길완. 「외상적 과거 되받아치기」. 『비평과 이론』 15 (2010): 69-93.

오향미. 「토니 모리슨의 『빌러비드』에 나타난 자아회복」. 세종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6.

위소영. 「토니 모리슨의 『빌러비드』에 나타나는 기억과 자아탐구」. 숙명여자

- 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9.
- 이들순. 「토니 모리슨의 *비러비드*에 나타난 가족과 공동체」. 『현대영미어문학』 19.3 (2001): 203-16.
- 이승은. 『토니 모리슨』. 서울: 평민사, 1999.
- 이영옥. 『미국소설과 공동체 의식 - 로버트 펜 워런, 토니 모리슨, 창래 리』. 서울: 세창출판사, 2016.
- 이영철. 『아프리카계 미국문학의 노예서사』. 서울: 동인, 2015.
- _____. 『토니 모리슨의 이슈와 시각』. 서울: 한빛문화, 2010.
- 천승걸. 『미국 흑인문학과 그 전통』.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 한재환. 『토니 모리슨의 삶과 문학』. 서울: 역락, 2015.
- Allan, George. "The Importance of the Past." *A Meditation on the Authority of Tradition*.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6.
- Angelo, Bonnie. "The Pain of Being Black: An Interview with Toni Morrison." *Conversation with Toni Morrison*. Ed. Danille Taylor-Guthrie. Jackson: University Press of Mississippi, 1994.
- Bonnet, Michele. "To take the sin out of slicing trees': The Law of the Tree in *Beloved*." *African American Review* 31.1 (1997): 41-53.
- Budick, Emily. "Absence, Loss, and the Space of History in Toni Morrison's *Beloved*." *Arizona Quarterly* 48.2 (Summer 1992): 117-38.
- Caputo, J. D. *Deconstruction in a Nutshell: A Conversation with Jacques Derrida*. New York, NY: Fordham UP, 2002.
- Caramagno, Thomas C. *The Flight Of the Mind: Virginia Woolf's Art and Manic-Depressive Illnes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 Cathy, Caruth. *Unclaimed Experience: Trauma, Narrative, and History*.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96.
- Darling, Masha J. "In the Realm of Responsibility: A Conversation with Toni Morrison." *Conversation with Toni Morrison*. Ed. Danille Taylor-Guthrie. Jackson: University Press of Mississippi, 1994.
- Du Bois, W. E. B. *The Souls of Black Folk*. Chicago: A. C. McClurg & Co., 1903.

- Harris, Trudier. *Fiction and Folklore: The Novels of Toni Morrison*. Knoxville: University of Tennessee Press, 1991.
- Hooks, Bell. *Talking Back: Thinking Feminist, Thinking Black*. Boston: South End, 1989.
- Horvitz, Deborah. "Nameless Ghost: Possession and Dispossession in *Beloved*." *Studies in American Fiction* 17.2 (1989): 157-60.
- House, Elizabeth B. "Toni Morrison's Ghost: The Beloved Who Is Not Beloved." *Studies in American Fiction* 18.1 (1990): 17-26.
- Kubitschek, Missy Dehn. *Claiming the Heritage: African-American Women Novelists and History*. Jackson: UP of Mississippi, 1991.
- Morrison, Toni. "The Site of Memory." In *Inventing the Truth: The Art and Craft of Memoir*, 2d ed. Ed. William Zinsser. New York: Houghto-Mifflin, 1995.
- O'Reilly, Andrea. *Toni Morrison and Motherhood: a Politics of the Heart*.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4.
- Otten, Terry. *The Crime of Innocence in the Fiction of Toni Morrison*. Columbia: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1989.
- Peach, Linden. *Toni Morrison: Contemporary Critical Essays*. London: Macmillan, 1998.
- Perez-Torres, Rafael. "Knitting and Knotting the Narrative Thread *Beloved* as Postmodern Novel," *Modern Fiction Studies* 39.3 (1993): 689-707.
- Peterson, Shawn. *Loving Mothers and Lost Daughters: Archetypal Images of Female Kinship Relations in Selected Novels of Toni Morrison*. Salem: University of Oregon Press, 1993.
- Rushdy, Ashraf H. A. "'Rememory': Primal Scenes and Construction in Toni Morrison's Novels." *Contemporary Literature* 31.3 (1990): 300-23.
- _____. "Daughters Signifyin(g) History: The Example of Toni Morrison's *Beloved*." *American Literature* 64.3 (1992): 567-97.

- Samuels, Wilfred and Clenora Hudson-Weems, *Toni Morrison*. Boston: Twayne, 1990.
- Schapiro, Barbara. "The Bonds of Love and the Boundaries of Self in Toni Morrison's *Beloved*." *Contemporary Literature* 32.2 (1991): 194-210.
- Wyatt, Jean. "Giving Body to the Word: The Maternal Symbolic in Toni Morrison's *Beloved*." *PMLA* 108 (1993): 474-88.

<Abstract>

The Recovery of Self through Rememory in *Beloved*

Hyangoak Lee

Major i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Jongmin Byu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lives of the characters appearing in Toni Morrison's *Beloved*, the process of facing the past through rememory and their recovery of self. The opening of the novel is set in 1873, not long after the liberation of slaves, but the main characters are living in mental isolation, unable to manage their own lives. In the course of looking back upon the isolated lives of the main characters, Morrison delves into the nature of slavery and its continued effects on those who suffered under it, as it influences their sense of self and their future paths.

The main characters of this novel, Sethe and Paul D are deprived of their mental freedom due to the mental traumas they suffered under the system of slavery. Although she did not experience slavery directly, Denver also experiences mental disturbance, having grown up in an abnormal environment, alienated from the society. The pitiful situation of Sethe and Paul D encapsulates the shape and condition of all black people who experienced slavery. It exposes the shame of the slave system, unchecked and camouflaged for so long in the 'country of dreams'.

The point emphasized by Morrison is that the past governs our daily lives, never to be forgotten even if it is untold. It is dangerous to dream of the future without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February, 2018.

settling our experiences of the past, the memories of which continue to disturb our present lives. A true recovery of self can be achieved only when the scars inflicted in our past are expressed through our own voice and shared with other people. The being of the Beloved, which emerged in embodied shape, is an epic device used to accelerate the rememory. Sethe and Paul D came to discover the hidden facts of their pasts through storytelling, as their fragmented and scattered memories are integrated and reconstituted into oneness.

In addition, the memories ignited by the appearance of Beloved enables the main characters to recognize and approach their painful past in a fresh way. By coming to recognize themselves gradually, via rememory, they are able to gain a foothold on the present and let go of the past in the right way. But Sethe concentrates on the relationship with Beloved more and more as time elapses and sinks into the past again. The daughter of hope, Denver, asks for assistance from the community by running out. Sethe shows the possibility of self-recovery as a true entity by sensing her own value out of the bondage of the past, owing to the assistance from the neighbors.

In conclusion, this novel offers an insight into a black female writer who would like to acquire psychological freedom by means of rememory. Through talking and sharing, one can draw out the hidden scars that linger internally in all black people due to the harmful effects of slavery. This is the theme of this text, and it is a basic right for African Americans seeking to recover their depressed egos and wanting to live as righteous constituent members of American society. *Beloved* conveys with great power and meaning the special experiences black people suffered under the system of slavery, but extends and connects this central theme to the universal issue of searching for human identity.